



www.maggun.com

2017. 03 vol. 72

MAGAZINE Gunsan

People & Culture in Gunsan



9 772383 813003
ISSN 2383-8132

Artistic State of Mind

- 화연갤러리 **배나연** 대표 · 군산대학교 사회환경디자인공학부 **박성신** 교수
- 대영장식 **이근수** 사장 · 한국영화인총연합회 군산지부 **오대섭** 지부장 · SKIN & EYE **김희아** 원장
- 군산대학교 체육학과 **채정룡** 교수 · 군산역사사랑회 · 쿠키미스튜디오 **차선미** 대표
- 연극배우 **강나루** · 베트남 다문화가정 설 명절잔치

SINCE 1983

하이트진로

hite



여러분은 이제부터
hite만 마십니다!

친맥하라 hite

경복하세요!!
정기

경고: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나쁜 영향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발생률을 높입니다.

해양도시군산
Dream Hub
GUNSAN

풍요·융화·품격을 갖춘 동북아 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



풍요·융화·품격을 갖춘 동북아 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

세계 최장의 33.9km 새만금 방조제!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주식회사 군산
GUNSAN CITY

Now

국립군산대학교



새만금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도
강의실에서 계속되는 토론의 열기는 식히지 못합니다.
젊은 열정과 꿈이 가득한 캠퍼스,
오늘도 연구실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학생이 중심인 행복한 대학,
여기는 국립군산대학교!



교육부 평가 최우수 대학



국립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web. www.kunsan.ac.kr add. 전북 군산시 대학로 558

Just Kunsan!
Since 1947

교육혁신의 선두!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
전국 최우수 등급(A)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선정

산학연계 교육 선도대학!

지역중심국립대학 중
전국 유일 PRIME 사업 선정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2년 연속 우수대학 선정

산학협력의 강자!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3년 연속 선정

황룡캠퍼스

달린다 봄이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이

새싹 돋는 도서관 언덕

꽃피는 호숫가

자연대 앞 나무들 단풍으로 물들이고

눈 덮인 운동장을

계절이

빠르게 지나간다.

하얀 겨울 지나간 캠퍼스

봄 비 속에 우산꽃 피우면서

새내기들이

뒤쫓아 달려간다.



어수선한 정국 속에서도 어김없이 계절은 바뀌고 있다. 새봄이다. 모든 생명의 소생이 새롭게 느껴지기에 계절 이름 앞에 '새'자가 붙는 것은 그래서 봄밖에 없다. 월명산길을 걷노라면 따사로운 햇살 아래 모든 수목들이 겨우내 움츠렸던 기지개를 켜는 듯하다. 진달래, 개나리도 바지런히 꽃망울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호수 안의 물고기들은 봄 햇살을 즐기며 느긋한 유흥을 즐기고 있다. 군산 시민의 건강관리센터 역을 하고 있는 월명산은 산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심신의 힐링을 얻는다. 길가의 초목이나 야생화 한 송이에서도 생명의 경이로움이 느껴질진대 잡다한 번민을 잠시 떨치고 살포시 그들과 대화라도 나눠보라.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그 꽃과 나무들 역시 당신을 반길 것이다. 때론 의젓하고 때론 예쁜 자태로 그들이 발산하는 경이로움과 맑은 공기는 당신의 사랑에 대한 그들의 답례일 터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은 별개가 아니라 서로 아끼고 도우며 상생하는 관계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 했던가, 봄은 왔건만 군산의 지역 경제는 부정적 전망뿐이다. 올 6월 기점으로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 발표는 가뜰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더 얼어붙게 하고 있다. 전북도와 시차원에서 가동중단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기업에서는 방침을 철회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철저히 손익을 따져 이익이 있으면 남고, 없다 싶으면 냉정히 떠나는 것이 기업의 생리라지만 군산으로서는 찬물을 뒤집어쓴 꼴이다.

향후 지역 경제에 미칠 여파가 어느 정도일지 걱정스러운 지경이다. 새만금은 또 어떤가. 최근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새만금 개발 약속이 심심찮게 나오는 것으로 보아 어김없이 또 선거철이 닥쳤음을 알게 해줄 뿐이다. 도대체 몇 십 년을 우려먹을 심산인가. 지역경제 희생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이제 새봄을 맞아 나라 전체가 바뀌길 염원해본다. 모든 부조리와 적폐가 청산됨으로써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지 않는 반듯한 국가로 다시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나라의 주권은 위정자와 그 패거리가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가치의 존중 틀에서 이치가 바로 서는 나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나라, 강대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굴종이 아니라 나라의 주권과 자존심을 중히 여기는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국격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글 I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매거진군산에 독자의견을 보내주세요.

매거진군산은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어떤의견이든 관찮습니다. www.maggun.com의 독자의견에 올려주시거나 jay0810@hanmail.net에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맥군의 오타를 잡아라!>

이달부터 맥군의 오타자를 찾아 주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이나 팩스로 연락처를 기재하여 보내주십시오.

E-mail_ jay0810@hanmail.net Fax_ 063) 911-1856

협찬업체

베니키아 아리울 호텔 063-464-2005~7_ 숙박권
다이도 063-452-3800_ 식사권
오죽 063-464-5625 _ 식사권
하이트진로 063-453-5111_ 맥주
미즈커피 063-446-2867_ 음료권
바나나팩토리 070-4274-8839_음료권
커피점빵 063-468-1776_음료권

* 군산 하이트 진로에서 제공하는 맥주를 받고 싶은 구독자께서는 신분증을 지참(미성년자 불가)하시고, 매거진군산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직접 수령해 가시면 됩니다.

매거진군산에서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협찬하시고 싶은 업체는 연락 바랍니다.

이벤트 당첨자

* 응모시 주소, 연락처, 원하시는 상품을 필히 기재해주세요.

지난 호 크로스워드 퍼즐 당첨자

최병주	송승찬	이정용	정원희	오재성
조정희	채연하	김주아	윤신아	서대진
박금선	신승우	두미현	김현호	이승미

“꿈이란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에요. 언제 하느냐의 문제예요.”

카카오 브런치북 2회 대상 수상

인생을 스스로 걸어가는 소도시 청춘들의 리얼 다큐멘터리!

무대가 없으면 어때? 목적 없는 공부를 왜 해? 대학을 안 나오면 어때?

농사가 어때서? 한 번쯤 망하면 어때? 서울에 살아야 할 이유는 뭔데?



우리, 독립청춘

우리는 소도시에서 일한다

배지영 지음

인생을 스스로 만들고

나만의 길을 걸어가는

소도시 청춘들의

따라하고 싶은 43가지 이야기!

북노마드

배포처

군산매거진은 매달 초 1~3일에 발간되며 아래 배포처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발간되는 매수가 제한되어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

- 원도심_ 신포우리만두 063-445-0389
골드북권방 063-445-1212
던킨도너츠 063-443-7887
미다원 063-462-2132
우리문고 063-445-0031
- 나운동_ 비달헤어 063-461-7015
한길문고 063-463-3109
- 은파_ 파라디소페르두또 063-471-8525
유원지_ 산타로사 063-462-9062
뮤직포유(RED HAT) 063-466-8202
- 기 타_ 군산역
군산CC 063-472-3355
커피집빵 063-468-1776
다이도 063-452-3800
군산근대역사박물관 063-443-8283
고우당커피숍 063-443-1042
아리울 웨딩 063-453-3200

구독문의

매거진군산은 매월 초 발행되며 위 목록의 장소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타지역 및 맥에서 편하게 우편으로 받아보실 분께서는 홈페이지 www.maggun.com 의 정기구독 코너에 성함, 연락처, 주소와 입금자 성명을 남겨주시거나, 매거진군산 (063)445-1856으로 연락주시면 1년간 매달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일 년 배송료는 25,000원입니다.

입금처_ 신한은행 110-327-977900
예금주_ 아이씨엠 이진우

광고문의

매거진군산에 광고를 게재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광고 마케팅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광고마케팅 부서_ (063)445-1856

기사제보

주변의 즐거운 이야기와 흥미로운 인물 등을 매거진군산에 제보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 매거진군산과 편집의도와 방향이 어울린다면 누구나 자유기고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글, 멋진 사진을 보내주세요.

jay0810@hanmail.net



Vol. 72 | 2017.03

magazine gun	발행인·편집장	이진우	jay0810@hanmail.net
	디 자 인	박유경	282pyk@hanmail.net
주 간	진현태	김동섭	gkfp3456@naver.com
	오성렬	조종안	nan901125@naver.com
시 민 기 자	이희찬	배지영	poi3275@naver.com
상 임 고 문	lhc-good@hanmail.net	이생곤	chongani@hanmail.net
시 민 기 자	okbjy@hanmail.net	심권택	grandlee@kmni.co.kr
시 민 기 자	sys2091@daum.net	이춘우	kinkyfly@naver.com
자 유 기 고	gsforum@hanmail.net	이영진	younggeen2@naver.com
컬 럼 니 스톱			
컬 럼 니 스톱			

제작_ ICM www.creativemind.kr / (063)445-1856
주소_ 전북 군산시 중앙로 1가 23-11
출판신고번호 467-2011-000002
인쇄_ 진포인쇄 (063)471-1318
온라인_ 웹닉스 (063)453-5430

매거진군산은 www.maggun.com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매거진군산에 실린 글과 사진은 사전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거진군산은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타간행물사업 신고번호_군산 라00007 / 매거진군산은 군산사람들과 군산의 라이프스타일을 코디해주는 오직 군산사람들을 위한 잡지입니다.

1945 Thanks Rice & Nature / Health Bakery 1945

Thanks to rice and nature. Since 1945 bakery that considers your health.
The beginning of a healthy day is baked here!
The place where it gives a stir in one's heart By Lee Sung Dang Bakery.

LEE SUNG DANG
Thanks Rice & Nature / Health Bakery 1945

해방과 함께 시작된 ‘이성당’의 내공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든 건강한 빵

이성당은 자연과 쌀에 감사하며, 손님을 대접하는 정성스런 마음으로 항상 노력합니다.

이성당의 대표적인 빵은 앙금빵과 야채빵이 있으며,

2006년 부터는 쌀과 빵을 연결하는 일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블루빵'으로서 일본의 니가타현에 있는

'겐리치' 제과점에서 전수 받았습니다.

현재에는 효모종을 이용한 다양한 쌀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LEE SUNG DANG

●■■■■■■■■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

주문및 상담 . 전화 063-445-2772, 080-445-2772(무료)
전북 군산시 중앙로 1가 12-2

근대미술품
전시·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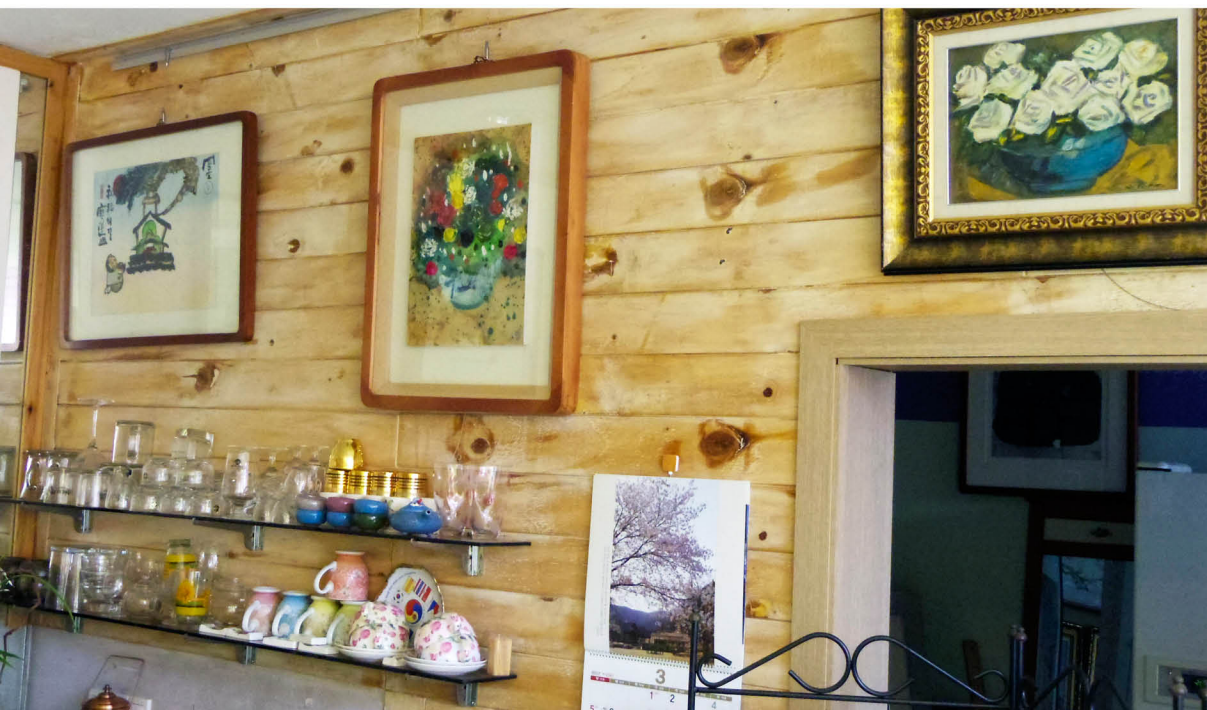
화연갤러리

배나연 대표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패션 거리인 영동에 최근 근대 작가들의 미술품을 전시, 거래하는 공간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아담한 규모로서 찻집도 겸한 '화연갤러리(和然Gallery)'의 운영자인 배나연 대표는 호반의 도시인 춘천 생으로 이모의 소개로 군산 남자를 만나 혼인, 25년째 군산에서 살고 있으니 이제는 군산이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결혼 후 그녀는 남편의 고향 마을인 임피에서 약 8년간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시내로 이주, 신 시청 부근에서 '해와달(sun & moon)'이라는 갤러리를 열어 16년간 운영하다가 지난 2월 말 현 위치로 이전 개업했다. 사학 전공인 그녀가 미술품에 남다른 취미와 전문가적 안목을 띄우게 된 데에는 부친의 영향이 컸다. 그녀의 어린 시절, 공무원이셨던 부친은 평소 고미술품 수집 취미로 상당한 작품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자신도 조금씩 관련 지식이 쌓여갔다. 그 작품들 중에는 200년 전 달마도(김명국 작)를 비롯하여 결레스님으로 알려진 중광스님의 그림, 그리고 추사 김정희, 눌인 조광진과 더불어 조선의 3대 명필로 알려진 창암 이삼만의 서예작품도 있었는데 달마도는 거의 1억 원에, 그리고 프랑스에서 동양의 피카소라 일컫기도 하는 중광스님의 작품과 창암 선생의 작품도 어느 애호가가가 고가에 구입해간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러나 부친 별세 후 8남매나 되는 집안 형편은 급격히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이 남은 작품들 중 일부는 헐값에 내다 팔아 생활고를 덜어야만 했다. 지금도 그 시절만 생각하면 너무 속이 상하고 안타깝다는 그녀는 이후 부친의 취미를 이어받아 30여 년에 걸쳐 옛 미술품과 도자기 등의 수집에 공을 들이고 자연스레 거래까지 이뤄지게 되면서 이제는 스스로 전문가 수준을 자처할 할 정도가 되었다.





미술품과 별개로 그녀의 또 다른 전문 분야는 꽃꽂이다. 이 역시 취미로 시작했던 게 어느덧 30여년의 경력 보유자가 됐다. 그녀가 강습을 받은 곳은 서울 삼성동의 '금련회'로서 사단법인 한국꽃꽂이협회 최고 과정 단체다. 꽃꽂이는 초, 중, 고급 과정까지 최소 18년 이상이 소요될 만큼 어려운 종목으로서 한국과 일본을 통틀어 1~2위 실력을 다투는 이 단체에서 지도자 자격증도 취득, 일반인을 상대로 한 강습과 함께 수차례의 개인전을 갖기도 했으며 현재 전라북도 심사위원장 직을 맡고 있기도 하다. 또한 동양란에 심취, 8년에 걸친 수련과정을 마스터했으며 지금껏 일본산으로만 알려졌던 1경9화란(一莖九花蘭/한 꽃대에 아홉 송이의 꽃이 피는 난초)이 옛 고서에서 전남 무안이 자생지로 수록된 것을 찾아내 현지를 답사, 무안이 원산지임을 밝혀낸 장본인이다. 이 난초는 향기도 그윽한 데다가 희귀한 종류로서 그녀는 자신의 노력으로 누구도 몰랐던 원산지를 밝혔다는 데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일까, 갱년기를 맞아 한 때 건강 이상으로 겪던 심신의 고통이 미술품과 꽃꽂이에 심취하면서부터 자신도 모르게 호전되어 이제는 확연히 건강을 찾았다는 말을 들려주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취미들은

단지 재미를 넘어서 심신의 안정에 커다란 효과가 있음이 증명된다 할 수 있겠다.

그녀의 갤러리에는 이중섭의 소 그림을 비롯하여 생명 잉태의 근원인 여성의 자궁을 한 송이 꽃으로 형상화한 원공(圓空)스님의 모란, 영친왕비 이방자 여사의 닭 그림, 생존 작가인 어당 박문순의 비구상 등 다수의 작품과 더불어 도자기와 민화도 전시되어 있다. 아직 미술품에 대한 안목이나 수준, 거래가 취약한 지방 도시다보니 작품의 거래는 뜸한 편이지만 언젠가는 임자가 나타날 것으로 믿고 있다. 그녀에 의하면 작품의 선호는 개인에 따라 다르나 작품 속에 담긴 역사적 의미로 큰 가치를 지니기도 한다며 박수근의 청계천 다리 밑 빨래터 그림을 예로 들기도 한다. 이 작품은 그 시대 서민 생활상의 한 단면이 그대로 옮겨진 것으로서 예술성과 작가의 인지도가 더해져 엄청난 고가에 거래된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는 것이다. 또한 작품 구입은 가격을 따지기 이전에 무엇보다 본인의 마음에 드는 게 중요하고 그 작품을 전시할 공간에 어울려야만 진가가 돋보이므로 신중히 판단해서 선택할 것을 권하는데 이것은 풍수적 관점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요



소란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소품일지라도 그 작가의 예술 세계와 영혼이 깃든 것이니만치 친밀도를 내세워 거저 얻으려한다거나 싼값에 사려는 것은 작품의 위상과 함께 구입자 스스로의 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소장하고 있던 민화 몇 점을 가지고 'KBS진품명품'프로에 출연해 진품 판정을 받아낸 적도 있다. 어느 작품이든지 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작가의 약력에 대한 사전 공부가 필요하고 요즘은 진품과 구별하기 힘든 모작도 유통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도 들려준다.

배 대표는 군산에 정착한 뒤로 사회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다. 1989년도에 창설된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초기부터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고문으로 몸담고 있다. 또한 농수산물 명예감시단에 들어 원산지표시위반 행위 등을 단속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정착을 위한 시민활동을 비롯하여 구 역전 무료급식소에서의 자원봉사활동 등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런 그녀가 일상의 피곤한 속에서도 생각만 하면 절로 힘이 솟는 부분이 있다. 남매 자녀들이다. 대학에서 미술 전공을 했던 딸 고예슬 양(26)은 2014년도 SBS수퍼모델 선발대회에 출전, 무려 2,600:1의 경쟁을 뚫고 당당히 수퍼모델로 선발될 만큼 타고난 용모로 현재 주위의 촉망 속에 열심히 활동 중이고, 아들 역시 군 제대 후 르노삼성에 취업, 착실히 진로를 밟음으로써 엄마를 기쁘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녀의 갤러리에는 때로 중,고 학생들이 단체로 학습 차 견학을 오기도 한다. 조선 시대를 포함한 근대 작품들에 관해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되기 때문일 터다. 또한 오랜 세월 패션거리로 명맥을 이어온 영동이지만 최근 불황 여파로 많은 가게가 떠나거나 문을 닫고 있어 세태의 무상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는 패션거리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정착되는 문화거리로의 변화가 예상되고 그러한 방향으로 탈바꿈되기를 바란다는 그녀는 더불어 우리 군산시가 단지 산업단지에 의존하는 공업도시를 넘어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발굴, 육성함으로써 문화의 저력이 탄실해지고 활기를 띠는 도시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며 밝은 웃음을 보여준다.

이중섭 그림



원공스님 작 여성의 자궁을 형상화한 꽃송이



영친왕비 이방자 여사의 작품



화연갤러리
군산시 장미1길2(영동)
배나연 대표 HP.010-3684-8975

옛 향수 자극하는 군산 원도심권 ‘꿀라쥬’

박성신 군산대
사회환경 디자인공학부
교수에게 듣는

‘기억지도’ 이야기

글 | 조종안(시민기자)
chongani@hanmail.net





도시재생 展이 열리는 이당미술관

군산대학교는 시민과 함께하는 군산시 도시재생대학(2016년 8월~2017년 1월)을 진행하였다. 수개월에 걸친 운영 성과물을 모아 〈시민과 함께 나누는 도시재생 展〉(사업 총괄: 박성신 군산대학교 사회환경 디자인공학부 교수)이란 타이틀로 영화동 이당미술관에서 전시회(2월 16일~26일)도 가졌다.

지난 26일 오전 이당미술관에서 박성신 교수를 만났다. 박 교수는 “그동안 의견을 주고받으며 공감대를 형성했던 주민들이 바쁜 중에도 찾아와 따뜻한 시선을 보내줄 것이기에 미더웠다”며 “전시는 주민들이 고민한 도시재생사업 참여 계획, 직접 챙겨주신 먼지 덮인 생활용품들, 옛 문서, 초등학교 앨범사진 등 오랜 시간의 파편들을 모아 기억의 단층을 형성했다”고 소개한다.

박 교수는 “이번 전시회는 도시재생사업 결과를 여러분과 공유하는 자리로, 공감대 확장을 위해 지난 흔적들을 기록한 〈옛 기억 속, 나의 살던 群山은〉(과거), 원도심권 토박이 주민들의 생활 이야기를 담은 〈지금 내

가 살고 있는 군산은〉(현재) 지역 주민들의 소망을 그대로 담아 전하는 〈우리가 살고 싶은 GUN SAN〉(미래)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꾸몄다.”고 부연한다.

도시재생대학 성과물인 다큐멘터리 동영상 〈군산의 기억: Memories of Gun san〉(제작: 오원환 군산대학교 미디어문화학과 교수) 상영도 방문객들의 이해를 돕는다.

기억 지도와 함께 떠나는 시간여행

2016년 군산시 도시재생대학은 주민강좌, 금요강좌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결과물을 3권의 책으로 엮었다. 1권은 강사들 강의 모음집인 〈군산금요강좌〉, 2권은 원도심권 주민들이 생각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군산인〉, 3권은 지역주민, 도시재생대학 수강생, 인터뷰 참여자들의 회고 및 신문기사, 사진 등을 수록한 〈군산기억지도〉이다.

그중 프롤로그(옛 군산, 記憶…), 영화동(永和洞), 월명동(月明洞), 개복동(開福洞), 그 너머(원도심권) 등 다섯 챕터(Chapters)로 구성된 〈군산기억지도〉가 눈길을 끈다. 이 책에는 일제강점기 군산항역,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군산지방 향만청, 조선은행 군산지점, 남조선전기주식회사, 전매청, 법원·검찰청,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 사택 등이 다양한 사연과 함께 실렸다.

맨 앞에 소개된 군산항역은 지금의 금동, 영화동, 월명동 지역 일본인들 편의를 위해 1931년 8월 1일 영업을 개시하였다. 역사(驛舍)는 장미동 군산세관 부근(한국 전력 군산지점 뒤편)에 있었다. 이 역은 1930년대 군산선(군산-이리)과 군산-전주를 오가는 협궤열차(경전철) 시발역이기도 하였다. 1935년에는 조선에서 유일한 부영(府營) 철도인 ‘서빈 철도’가 개통되어 더욱 활기를 띠었다.

군산항역은 개찰구만 있는 간이역이었다. 그럼에도 이용객은 물론 화물량도 예전 군산역보다 훨씬 많았다. 도선장(군산-장항)과 이웃하고 있었고, 일본인 거주지와 가까웠으며, 부청(府廳)을 비롯해 관공서, 금융기관,

상가가 밀집된 도시의 심장부였기 때문이었다. 군산항역은 태평양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기 시작하는 1943년 12월 1일 모든 운송 기능을 부두 화물역에 남겨주고 문을 내린다.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구영2길)는 1943년경 신축된 철근콘크리트 2층 건물이다. 광복 후 외자청(부흥부장관 소속) 조달청 등이 입주하였고, 2014년까지 군산시청 제3청사로 사용했다. 이 건물은 수탈의 역사를 입증해줄 증거물이기도 하다. 중일전쟁(1937) 후 일제가 식량 가격 및 유통량을 조절·통제하기 위해 조선식량영단을 특수법인으로 설립하고 군산출장소를 설치했던 것.

식량영단 건물은 서양의 고전적 경향에서 모더니즘 경향으로 변화하던 과도기적 시기 건축양식으로 지어졌다. 이곳은 1980년 광주민주항쟁을 배경으로 제작된 영화 〈화려한 휴가〉(2007) 촬영지이기도 하다. 도로에서는 총칼로 무장한 군인들이 무고한 시민을 폭력으로 진압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건물은 〈이주일 쇼〉 공연 예고 간판이 내걸린 문화극장으로 등장한다. 이 건물은 2014년 9월 전라북도 등록문화재 제600호로 지정됐다.

〈군산기억지도〉는 광복 후 베이스택시(미군전용 택시)를 비롯해 미군클럽, 양색시 쪽방촌, 초상화골목, 양복점골목, 양키골목, 선술집거리, 종합체육관, 애육원, 목재소, 건재상, 잡화점, 병원, 한의원, 사진관, 여인숙, 식당, 다방, 슈퍼, 서점, 약국, 양장점, 메리야스 공장, 모기향공장, 사이다공장, 연탄공장, 유리공장, 제약회사, 쌀창고를 리모델링한 카페 등 170여개 업소와 공장, 추억의 명소 등을 소개하고 있어 옛 정취와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중간마다 사진과 함께 소개되는 〈군산의 옥·屋과 당·堂〉, 〈군산의 가로·街路〉, 〈군산의 극장〉, 〈군산의 중국집〉 등은 내용을 더욱 풍성하고 맛깔스럽게 하면서 추억여행을 떠나게 한다.

“역사가 오래된 음식점 상호에는 대부분 옥(屋)이란 글



카페로 탈바꿈하기 전 영화동 쌀 창고(2009년 촬영)



도시재생대학 성과물인 책자들



1930년대 군산항역(출처 군산시)



광주민주항쟁을 배경으로 제작된 <화려한 휴가> 스틸 컷



옛 만춘향 전경(2009년 촬영)

자가 들어가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 상당수 음식점들은 음식점을 뜻하는 접미사로 옥(屋)자를 쓰는 경우가 많았다. 옥(屋)은 일본어로 야(や)라고 읽으며 옥(屋)으로 끝나는 음식점들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줄임)

빵집 간판은 'ㅇㅇ당' 같은 일본식 이름이 대부분이었다. 제빵 기술자들이 일본인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은 까닭이다. 일본어로 당(堂)자는 집이나 따로 지어진 사랑채와 같은 건물을 뜻하는 말로 '~하는 집', '~집'이라는 뜻으로 쓰이며 빵집뿐 아니라 여러 상호명이나 건물명에도 사용될 수 있다.”
-<군산기역지도> 47쪽

“지금은 없어졌지만 빈해원 바로 옆에는 중국 음식을 주메뉴로 하면서 한식과 양식을 망라한 '만춘향'이 자리 잡기도 했다. 당시 서울에서도 보기 드물었던 새로운 양식(樣式)의 식당이 군산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은 당시 군산 경제와 군산화교의 호황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군산화교가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의 맥은 지금도 국제반점, 신평원, 제일반점, 영빈각, 영화원, 흥영장 등의 간판을 달고 면면히 이어지

며 군산의 중화요리 업계를 주름잡고 있다.” <군산기역지도> 81쪽/ 2016년 7월 5일 <NSP통신> 재인용

만춘향(萬春香)은 주인이 화교였음에도 한식, 일식, 중식, 양식을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 백화점이었다. 만춘향 요리는 약간 느끼하면서 차이나 향이 짙하고 빈해원 요리는 순하고 담백하다는 게 70~80년대 군산 미식가들의 평가였다. 것처럼 빈해원과 쌍벽을 이루며 호황을 누렸던 업소가 언젠가 주차장으로 변해 예전 단골들에게 아쉬움을 안겨주는 추억의 장소가 됐다.

만춘향은 군산 화교소학교가 처음 동지를 틈 곳이자. 한강 이남 화교 교육의 요람이기도 하다. 뜻있는 군산의 화교들이 1941년 10월 10일(쌍십절) 이곳에 있던 중화상회(화교협회) 건물 일부를 임대받아 서울, 인천 다음으로 중국 어문강습소를 개소했던 것. 제주, 목포, 순천, 광천, 홍성, 전주 등지에서 유학 온 학생들 기숙사도 갖췄던 중국 어문강습소는 이듬해(1942) 군산 화교소학교로 정식 인가받고 격랑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른다.





기억지도는 도심의 단편을 추출해낸 '폴라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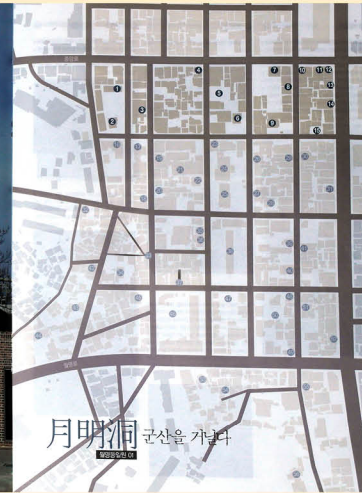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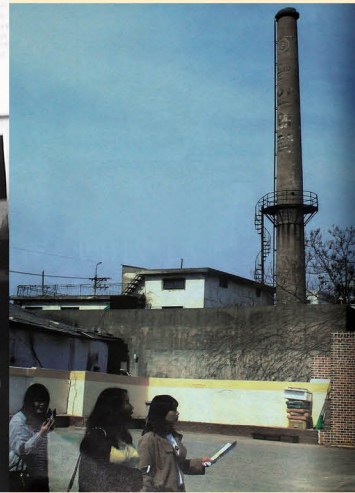
군산시는 근대역사 체험 공간과 탐방로 조성을 목표로 월명동, 영화동 내 업소 150여 개 간판 및 안내판 교체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지역은 일제강점기 아니면 60~70년대 건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박 교수는 “지역의 가치를 잘 알리기 위해 시행한다지만 각 매장의 특성을 살리기보다는 ‘1930년대’라는 획일화된 콘셉트로 비늘벽을 흉내 낸 간판들이 원도심이 지닌 시간의 깊이와 다양한 공간을 덮어버려 가슴 언저리가 답답해진다”며 아쉬움을 표시한다.

박 교수는 “군산은 광복 이후 향만 기능이 극도로 약화됐다. 1990년대에는 관공서(시청, 세무서, 법원, 검찰청 등)

이전, 고령 인구 증가 등으로 원도심권은 한동안 쇠퇴의 길을 걸었다. 몇 해 전 시작된 도시재생 사업은 원도심권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도시 변형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도 하다”며 “이미 사라진, 곧 사라져버릴 군산을 기억하고자 도심의 단편을 사람들로부터 추출한 ‘폴라쥬’가 바로 이 기억지도”라고 말한다.

“기억지도는 서툰 아카이브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아카이브 작업은 2016년 도시재생대학 강좌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옛 군산의 기억을 이야기하는 시간에서 출발했죠. 개인의 일상과 생활을 채록하고 정리하고, 실제 현장을 찾아다니며 여러 사람의 기억들을 퍼즐처럼 맞춰나가 공공의 기억을 지도로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세대를 만나면서 군산은 일제강점기 역사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켜가 겹겹이 쌓인 살아 있는 도시임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도심에 홀로 남은 동인제약 골목, 세월의 무상함을 말해주는 듯하다. (<군산기억지도> 42~43쪽)



여행객들에게 도시의 산책자가 되어보라고 제안하는 박성신 교수

박 교수는 “기억지도는 길을 잃은 여행자들이 미로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며 “옛이야기들을 읽으면서 골목과 모퉁이를 돌다 보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고, 또 군산이 지닌 시간의 적층을 들춰보고 상상하며 도시의 참 모습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인다.

박 교수는 서울 토박이다. 군산에는 2010년에 처음 내려왔다. 그러니 군산 나이로 치면 올해 일곱 살이 된다. 모두가 생소하고 두렵게 느껴졌던 그였다. 그랬던 그가 지도 작업을 마무리할 즈음엔 안부가 궁금해지는 사람이 많아졌고, 갑작스레 내리는 눈비를 피해 불꽃 들어갈 수 있는 가게도 생겨났고, 추운데 먹으라며 건네주는 뜨끈한 호떡도 덩석 받아먹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일까. 박 교수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자 군산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제안한다. 군산이 지닌 순간의 매력을 보고 지나치기보다는 시간 들어 천천히 걷고 머무르면서 진정한 도시의 산책자가 되어보라고, 또 나에게 익숙한 도시로 만들어 보라고.



“장사꾼들이 이룬 안 남기고 판다면 거짓말
저는 그냥도 주인요.”

우리 동네 오래된 가게들 ⑥

65년 전통, 3대째 가업 잇는 지업사 ‘대영장식’

글 | 배지영(시민기자) 사진 | 진정석
okbjy@hanmail.net jin0101@hanmail.net

우리나라는 자영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OECD 국가들보다 두 배나 많다고 합니다. 창업하고 3년 안에 닫는 가게는 47%, 10년 안에 닫는 가게는 75%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추억이 깃든 가게들, 10년 이상 된 우리 동네 가게를 찾아갑니다. - 기자 말

1952년, 남과 북이 휴전 하려면 아직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갔다. 천장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집도, 벽으로 칼바람이 불어오는 집도, 식구들과 등을 대고 누울 수만 있다면 ‘안온한 집’으로 족다. 그해에 이서복씨는 ‘대영지업사’를 열었다. 그의 가업을 잇게 된 둘째 아들 이명원씨도 1952년생, 지업사와 출생년도가 같다.

“군산 북중학교 2학년 때, 학교 그만두고 지업사 일을 했어요. 가게 종업원 둘이서 창고 물건을 빼돌려서 팔다가 걸렸거든. 그 공백을 누군가는 메워야 했어요. 아버지가 나보고 도와 달라고 했죠. 그때는 폭 35cm짜리 갱벽지가 접어져서 나왔어요. 사람들이 손수 도배를 하던 시대예요. 신문지만 바르고 사는 집도 많았고. 장판은 구라모도라고, 세멘(시멘트)종이 재질 같은 게 나와요. 그 위에 손수 콩기름을 맥여서 깔았어요.”

전북대 상대 1회 졸업생이었던 이서복씨는 아들을 어른처럼 대했다. 엄하게 일을 가르쳤다. 도매와 소매를 겸하는 지업사. 포장한 물건을 총청도 곳곳까지도 보냈다. 이서복씨는 십 수 년째 해왔던 일, 아들 명원씨가 조금만 잘못 해도 혼냈다. 그러니까 10대 소년인 아들은 “초자니까 모를 수도 있죠”라면서 대든 적도 있다.



아버지의 말이 범이던 시대, 이서복씨는 아들에게 “어차피 네가 해야 할 일이니까 맡아서 하라”고 했다. 명원씨는 그 말을 거스르지 않았다. 도배장판 일을 자신의 업으로 생각했다. 일을 가르쳐주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명원씨는 가게에 혼자 남았다. 중매로 만난 이상희씨와 7년간 연애하고 결혼해서는 함께 가게를 꾸려갔다.

“지금 세풍 아파트 근처쯤 될 거예요. 화전 외인 아파트라고 있었어요. 제가 단지 전체의 도배장판 공사를 맡아서 했어요. 그때는 지금 같이 좋은 도배풀이 있들 안 했어요. 큰 솔에다가 풀 끓이느라고 새벽마다 그렇게 고생을 했어. 근디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지업사 일은 가장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일해주고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업사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일은 했는디 공사비는 커녕 재료값도 건지들 못 해요. 그런디도 도배를 해준 사람들한테 책임을 지고 노임비는 물어줘야 하잖아요. 속병이 안 생기겠어요? 별 사람들이 많아요. (웃음) 도배장판을 하는 사이에 집 팔아먹고 도망을 가버리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이근수씨는 이명원씨의 아들이다. 학교 공부를 잘 했던 근수씨는 지업사 일을 물려받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다. 부산의 한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생활비를 벌었다. 그는 엄궁에 있는 과일 경매시장 33번 중매인 가게로 출근했다. 날마다 새벽 3시 반까지. 중매인이 경매 받은 과일을 옮기는 일을 했다.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오후에는 경매 받은 과일을 1톤 트럭에 싣고 거제도(부산보다 물가가 비쌌다고 함)로 갔다. 세 명이 한 팀을 이루어 움직였다. 아파트 단지를 돌며 과일을 팔았다. 근수씨는 앞날을 고민했다. 학교 졸업한 뒤에 직장인이 되고 싶지 않았다. 자기 사업을 하고 싶었다. 그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손님에게 어떻게 다가서고 응대하는지를 눈여겨봤다.

“부산에서 대학 다니는 4년 동안 온갖 알바를 했어요. 그래도 학점은 4.38이었어요. 부모님이 고생하는 것 아니까, 용돈 달라는 말이 안 나왔어요. 공부하면서 일하는 게 저한테 맞기도 했어요. 제가 가만히 있지를 못 하거든요. 부산은 대도시니까 정말 잘 사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나도 빨리 잘 돼야지. 너무 높은 데 보면 지치니까 적당한 높이를 보고, 이루고 또 다시 높은 데를 보면서 가자’는 생각을 했어요.”

근수씨는 군 제대하고 바로 일을 했다. 20대 청년이 드문 공사 현장. 그는 목포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타일 붙이고, 천장에 돔을 설치했다. 그 일을 총괄하는 사장은 40대, 땀에 전 작업복을 벗고, 근사한 세단을 타고 퇴근했다. 근수씨는 그 모습이 매력 있다고 생각했다. 현장 일이라면, 근수씨도 잘 해낼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다.

스물여섯 살 때, 근수씨는 군산으로 돌아왔다. 아버지에게 “가업 이을게요”라고 말을 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 처낼 것은 과감하게 없앴다. 외상 사절! 물건을 사가는 소비자나 업체가 “공사 끝나고 계산 할게요”라고 말하면, 거래를 하지 않았다. 물건 값과 시공비를 받은 다음에야 일을 진행했다.

“공사 대금을 먼저 주면서까지, 우리 가게를 찾아올 메리트가 있어야 하잖아요. 저렴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 있는 공장에 가서 직접 물건을 사와요. 공장에서 대리점, 도매상을 거치면서 생기는 마진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 파괴시켰어요. 예를 들면, 남들이 10% 마진 볼 때, 저는 3%를 남겨요. 장사는 멀리 보면서 해야죠.”



도시마다 큰 시장을 끼고서 지업사 상권이 발달해 있다. 군산도 군산역 시장 골목에 지업사들이 모여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가게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다. 근수씨는 바로 거기에서 시작했다. “지업사 장사가 되겠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 때부터 지물업계 한 분야만 봤으니까 다른 것에 손 안 대고 갈 거예요”라고 했다.

그는 자신했다. 새로 도배를 한다면, 아는 사람한테 맡기는 경향이 있다. 인맥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지업사 세계다. 근수씨는 큰돈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한 자리에서 쌓아온 경력과 인맥의 값어치는 어마어마했다. 아버지는 먼저 근수씨에게 “네가 일을 알아야 기술자들을 다룰 수가 있다”면서 바닥재 시공을 배우게 했다.

“6개월간 전주로 출·퇴근했어요. 30년 경력의 바닥시공 전문가인 막내외삼촌한테 일을 배웠어요. 새벽에 출근해서 밤 12시 넘어서 퇴근했어요. 완전히 스파르타 방식으로 배웠어요. ‘반년 일하고 네가 어떻게 기술을 알겠냐고 하시는 기술자들도 계실 거예요. 진짜 하루도 안 쉬고 일하면서 배웠어요. 아버지가 저보고 방 열 몇 개를 시공해보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야 통과가 됐어요.”

바닥 공사는 변수가 따른다. 날씨나 바닥 면의 상태에도 영향을 받는다. 무겁고 뻣뻣한 장판, 여름철은 장판 다루기에 좋은 때다. 겨울철에는 보일러를 돌려서 장판을 부드럽게 만드는 게 먼저다. 그 다음에야 시공을 한다. 그렇게 해도 하자가 나올 수 있다. 근수씨는 무조건 하루를 넘기지 않고 A/S를 해준다. 그게 철칙이다.

사실 근수씨는 바닥 시공하는 것보다 영업이 더 좋다. 수익이 생기면, 수도권에 있는 큰 공장들을 찾아가서 직거래했다. 60여 년간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일군 ‘대영장식’을 신뢰해 주니까 가능한 일이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근수씨는 서울과 부산의 잘 되는 인테리어 업체들을 찾아다녔다. 보고 배운 것들은 군산 시장에 맞게 적용했다.

“일은 진짜 재밌어요. 일반 지업사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건을 ‘하면 되겠다’고 들여왔는데 대박이 날 때요. 물건을 대량으로 가져온다는 건 투자를 했다는 뜻이잖아요. 소비자들 반응이 좋으면, 당연히 수입으

로 연결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실패는 없었어요. 운이 따랐지요. 하지만 제가 그 전에 얼마나 많이 시장조사를 하고 노력을 했겠어요?

아버지 가게에서 일 시작한 때가 2012년이예요. 몇 년 간은 쉬는 날도 없이 일했어요. 친구들 만나서 놀고 싶을 때도 있는데, 사람이 다 잡을 수는 없잖아요. 간절했어요. 얼른 자리 잡고 잘 되고 싶었어요. 가게는 새벽 6시에 열죠. 그래야 현장에 나가서 시공팀에게 일거리를 맡기거든요. 요즘 들어서 야일요일에 쉬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 근수씨가 일 하는 것을 지켜봤다. 본 매장 외에 창고형 매장을 여섯 곳으로 늘릴 때는 걱정도 많이 했다. 그러나 좋은 물건을, 전북지역에서 가장 싸게 들어올 때마다 믿음이 쌓였다. 공장에서 바로 물건을 떼어와서 소비자한테 파는 일은, 아버지 세대에서는 상상하지도 못 했던 일이었다. 익산이나 전주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늘어났다.

근수씨는 “재고파악이 가장 중요해”라고 아버지한테 배웠다. 물건의 수량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손님이 원하는 물건이 어느 창고용 매장에 있는지 파악된다. 그래야만 판매로 연결이 된다. 한꺼번에 여러 팀의 손님들이 와도, 취향과 가격에 맞게 안내할 수가 있었다. 물건이 비슷해도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를, 가게 안에 다 써 붙여놓았다.

전국에서 가장 물건이 많은 곳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근수씨. 지난해에 아버지에게서 가게를 완전히 물려받았다. 따로 ‘대영장식’ 광고는 하지 않는다. 입소문을 믿는다. 인터넷 가격보다 더 저렴한 지업사가 군산에 있다고. 지난해에 근수씨는 576곳의 가정집에 벽지를 발라주고, 바닥 시공을 해주었다.

“장사꾼들이 이문 안 남기고도 준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하죠. 저는 그냥도 줘요. 어차피 집세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 배짱은 있어야죠. 3대째, 60년 넘게 소비자들을 만나서 신뢰를 쌓아온 가게예요. 공사도 잘해드리고요. 그래도 외상은 절대 안 줘요.”



(사)한국영화인 총연합회

군산지부

오대섭 지부장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영화인총연합회 군산지부 출범

우리 군산은 그간 '8월의 크리스마스' '타짜' '화려한 휴가' '장군의 아들' '말죽거리 잔혹사' '가비' '마더' '동갑내기 과외하기' '남자가 사랑할 때'를 비롯하여 약 116편에 이르는 영화 촬영지로, 그리고 인기 TV드라마였던 '엄마가 뿔났다' '제빵왕 김탁구' '사랑한다면 이들처럼' 등의 촬영지로 각광을 받았으면서도 정작 지역의 관련 산업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군산은 일제강점기 잔재가 다른 지역보다 많거니와 바다와 항구, 선창, 호수, 월명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조건이 영화나 드라마 소재의 배경과 맞아떨어진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에 뜻있는 예술인들 사이에서 영화배경의 요람으로서 군산이 지닌 정체성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던 중 작년3월 서울에서 활동 중인 오대섭 지부장의 모 후배가 군산을 배경으로 구상한 영화 '째보선창'의 시나리오를 들고 와 제작을 제안하면서 '영화인협회'의 설립이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지부장에 오대섭, 부지부장에 김영철을 선임, 6월에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의 인준을 받음에 따라 군산지부로 출범하게 되었는데 이는 영화 관련, 전북 시 단위에서는 최초의 단체랄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의 합작으로 추진하던 '째보선창'은 준비과정에서 보류된 채 촬영이 기약 없게 되어 아쉬움을 남긴 상태다. 난데없는 사드(THAAD)의 불뚱으로 한중 간 모든 교역이 취소되거나 보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왼쪽부터 오대섭 지부장, 김영철 부지부장, 고병주 자문위원

오 지부장은 군산대와 동 대학원에서 조소(彫塑)를 전공한(80학번) 미술인으로 졸업 후 한때 서울에서 조각과 관련된 일을 하던 중 연극에 심취, 83년 무렵 지금의 영화인협회 부지부장인 김영철 씨 등이 주도하여 발족한 극단 동인무대에서 87년부터 정식 단원으로 활동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김영철 부지부장이나 오대섭 지부장 모두 군산 연극 문화 태동의 산 증인이랄 수 있거나와 오 지부장은 현재 연극협회의 고문직을 맡고 있기도 하다.

영화 ‘아메리칸타운’

‘아메리칸타운’은 지난 1월15일부터 한 달 이상 군산에서 올 로케로 촬영된 영화 제목이다. 전수일 감독이 2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이 영화는 1980년대 후반 군산에 진주중인 미군들의 위안소로서 양공주들의 집단거주지로 조성된 속칭 ‘아메리칸타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위안소는 전국에 걸쳐 군산 외에도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이면 어디나 조성되었는데 군산의 경우 처음에는 영화동 일대에 미군들 위락시설이 형성되어 영어 간판 일색인 스트립쇼클럽이나 술집, 슬롯머신, 옷가게, 기념품가게 등이 즐비했고 따라서 시내 거리에서는 점령군으로서 거들먹거리는 미군들을 보는 것이 일상의 풍경이었다. 하지만 미군 상대 퇴폐업소와 양공주들의 윤락 행위 등이 자녀 교육에 문제가 된다는 민원으로 1960년대 말 지금의 위치인 미면 미성동에 옥구주식회사라는 법인체를 만들어 이주시키게 되는데, 이를 주도한 사람은 5.16군사 쿠데타의 실세 중 한 사람으로서 그 동네에 큰 땅을 소유하고 있던 B대령으로 알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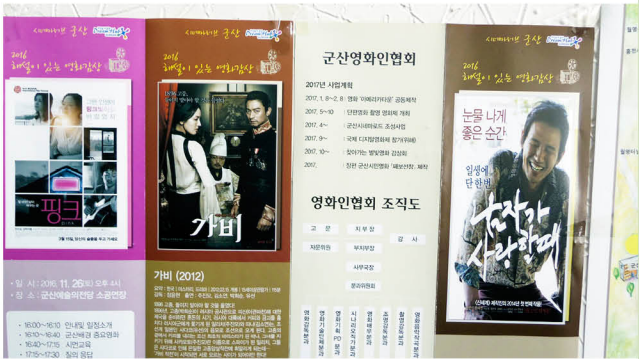
이러한 위락 지구는 민간이 조성하고 정부에서 방조하는 형태로 운영, 고수익을 낳는 사업으로서 1970년대까지만 해도 성업을 구가했다. 따라서 사업주와 포주들에게는 큰 돈벌이가 됐으나

1980년대 들어 미군의 숫자가 줄고 미군에 의한 양공주의 살해, 폭행 등 여러 사회 문제가 불거지면서 영외 거주 금지령이 떨어지고 911테러 이후에는 외출, 외박도 금함으로써 점점 쇠락의 길로 접어들어 현재는 많은 업소들이 떠나거나 문을 닫아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버타운, A-타운 등으로 불리다가 2010년 ‘국제문화마을’로 명칭을 바꾸면서 자생력 회복을 위해 변신하고 있는 아메리칸타운은 모두가 가난했던 옛 한 시대, 우리네 누나이자 여동생이자 딸이었던 많은 여성들이 미군의 성노예로서 처절하게 살아냈던 눈물겨운 역사의 공간으로 남았다.

영화 ‘아메리칸타운’은 바로 그 시대의 애환을 담아낸 작품이다. 그러나 주제는 타운의 전반적 이야기라기보다는 그곳에서 일하는 15세 소년과 20세 양공주의 사랑이야기로 전개된다. 당시 미군들에 의한 성병의 만연은 윤락녀들에게는 치명타였는데 그 성병이 다시 미군에게 전염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됐고 미군에 의해 성병 매개자로 찍힌 양공주는 군산 앞바다 유부도에 설립한 속칭 몽키하우스로 강제 격리 수감된 채 고단 위 폐니실린 주입으로 인한 쇼크사 내지는 정신 이상이 속출하기도 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에서 동물 취급을 받으며 기구한 삶을 견뎌야 했다. 이 영화도 그런 맥락을 짚은 작품으로서, 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동맹국 국민으로서 입장에 따라서는 불편한 영화일 수 있다. 하지만 아팠던 역사도, 비극의 역사도 분명 우리가 살아왔던 지울 수 없는 역사이기에 영화의 감상평은 관객 각자의 몫으로 남겨 두었다. 이 영화는 올 10월 중순 개봉 예정이다.

군산지부의 사업

오대섭 지부장은 ‘아메리칸타운’영화 촬영 관련 협회 차원의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전수일 감독을 비롯한 촬영 스텝만도 35명에다가 엑스트라



와 단역 등 여타 종사자까지 하면 70~80명이 넘기도 하는데 그들의 숙식 제공에서부터 촬영 장소, 사무실, 각종 소품과 의상을 비롯하여 공개 오디션으로 약 60여 명의 엑스트라와 단역을 선발하는 것도 모두 지부에서 협조해야 될 일이었다. 겨울촬영이라서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다행히 날씨가 받쳐준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오 지부장은 그간 군산에서 촬영된 영화 116편의 영화제도 구상하고 있으며, 촬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촬영지도도 제작, 거리 게시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연중 행사로 먼 단위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 영화 감상 기회를 제공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시민이 참여, 제작하는 시민 영화도 기획하고 있다는 그는 촬영 보류상태인 ‘찌보선창’의 시나리오를 부분적으로 다시 손질해 제작 준비를 할 예정이라는 말과 함께 군산이 지닌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를 영화에 접목, 명실상부한 영화 촬영 도시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듯 문화 콘텐츠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금이 문제일 수밖에 없겠는데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 동참과 별개로 지자체 차원의 예산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삭막한 토양에서는 꽃이 피어날리 없기 때문이다.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군산지부
군산시 동령길 36(장미동)
T.063)462-1234



군산 수송동 소재 SKIN & EYE

김희야 원장, 성장하는 피부관리실

글 | 이생곤(시민기자)
grandlee@kmni.co.kr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름다움에 무관심한 사람은 없겠지요. 그래서 전 피부관리 분야 만큼 성취감 있고 보람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양한 경험은 하지는 않았지만 피부관리 분야 만큼 성취감 있고 보람도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각양 각색의 다양한 고객님들을 만나면서 잡다한 이야기 꺼리도 나누기도 하고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라는 군산 수송동 SKIN & EYE 김희야 원장.

“피부관리 사업은 앞으로도 전망이 좋은 만큼 열심히 하면 어떤 분야보다 괜찮은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피부관리 분야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피부관리 분야에서 2년간의 짧은 경력에도 베테랑 경력자 못지않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그녀, 피부관리에 대한 비결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다.

피부관리 분야에 뛰어든 계기가 있었나요?

군산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에요. 사춘기를 겪고난 이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군산을 뜨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어요.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군산 보다 더 큰 세계로 나가 보고 싶다는 철부지 같은 생각이죠(웃음).

어떻게 기회가 되어서 일본을 가게 되었어요. 일본에서 학업과 네일아트를 병행하는 여학원(대학교 부속)에서 2년간 수련을 했어요. 몇년 후 귀국을 해서 경단녀(직장경력 단절 여성)로 지내다가 피부관리사 자격증에 도전하여 취득을 하게 되었고 매장 오픈을 해서 오늘에 이르렀네요. 결국은 네일아트를 수련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곳의 주 종목은 무엇인가요?

피부관리실이니깐 단순히 피부 관리만 하는줄로 알고 있겠지만, 속눈썹, 문신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부관리실은 총 4명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피부 관리를 메인 파트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세 분이 속눈썹, 문신 파트를 맡아

서 각자 전문성있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관리 분야에 종사하시면서 느끼는 매력이나 보람은 무엇입니까?

점 점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아름답게 나이 들고 싶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피부관리분야의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야는 AI(인공지능)화로 가능하지만 뷰티라는 것은 전문가의 감성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2년여 를 해오면서 느끼는 보람이라면 피부고민이 많았던 미혼 고객이 케어를 받은 후 피부에 자신감을 가질 때, 나이가 지긋한 어머님 같은 분이 10년은 젊어지신것 같다고 매우 좋아하시면서 빵을 선물로 가져다 주실때 없던 힘까지 납니다.

피부관리샵을 운영하시면서 원장님만의 운영 철학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객응대에 전문성있게 목소리 톤이랄지 대화시에 태도 등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원들을 배려하며 함께 운영하는 샵을 만들고 있습니다. 직원과 오너가 아니라, 서로 신뢰하며 누구나 주인의식을 가지고 운영하는 샵이라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 때 문인지 직원들도 즐겁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점점 발전하고 복잡해지는 피부관리 분야에서의 각자의 발전을 위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예전과 다르게 지식이 많은 고객님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사람몸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피부를 상하게 하는 습관이 있을까요?

이걸 알려주면 우리 피부관리실 문 닫는 것 아닌가요(웃음). 농담이구요. 돈을 떠나서 기본적인 상식을 허투루 하게 지나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보차원에서 말씀해드릴게요.

몇가지 팁이 있는데요. 첫번째는 여름에만 선크림 사용한다는 잘 못된 상식입니다. 자외선은 사계절 내내 존재합니다. 다만 여름에 더 강할 뿐이죠. 자외선에 노출이 된다고 분홍색으로 착색이 되지는 않겠지만, 주름살이나 검버섯을 만들어 피부를 노화시키고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어요. 자외선은 구름이나 유리를 통과하기 때문에 사무실 뿐만 아니라 차 내부까지 침투할 수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선크림을 충분히 바르고 다니세요. 그리고 외출 30분전 바르시면 더욱 좋아요.



두번째는 뜨거운 물로 오래 샤워하기인데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근육통이 생겼을 경우 따뜻한 샤워는 효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물이 뜨거운 경우 피부의 수분과 유분을 없애 피부를 붉게하고 가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한 피부라면 습진이 생길수도 있어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고 피부가 물 먹은 것처럼 쭈글이 상태가 되기 전에 샤워를 끝내야 됩니다. 피부가 마르기 전에 로션 등을 발라 수분을 유지해주면 피부가 매우 좋아하겠지요.

세번째는 피부 각질 지나치게 제거하는 겁니다. 피부 표면에 있는 각질층을 습관적으로 과도하게 벗겨내는 분들이 있는데 피부 노화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피부의 건강과 재생, 노화방지를 위해서는 적당하게 벗겨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잦은 각질제거와 화학적인 레이저, 필링 시술등을 지나치게 하시면 피부에 반점이 생기거나 따끔거림 현상이 생길수 있습니다. 피부가 예민해 질수 있으니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월 2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번째는 잠 적게 자는 것인데요. 충분히 잠을 자는 것은 좋은 피부를 갖게하는 지름길 입니다. 수면중에 새피부가 만들어지고, 각질화된 피부는 벗겨집니다. 또한 잠들기전 발랐던 화장품은 수면중에 피부에 가장 잘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미인은 잠꾸러기란 말이 괜히 나온말은 아닙니다(웃음).

다섯번째는 세안을 하지 않고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보통 알콜 섭취를 했을때 이런 경우가 많지요. 특히 남성분들이 귀찮아서 건너 뛰기 십상입니다. 이럴경우 화장품, 피지나 기타 불순물을 닦지 않고 자면 모공이 막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잠자기 전에 하루 두번 세안하는 것이 피부에 이상적이긴 하나 하루 한번만 세수를 하는 것도 충분합니다.

여섯번째로 손으로 여드름 짜는 행위 입니다. 여드름은 사춘기에만 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상 외적, 내적인 요인으로 생깁니다.

소독되지 않는 오염된 손으로 피부의 여드름을 건드리면 염증이 악화되어서 여드름자국이 오래 가는경우도 많고, 피부의 가려움증, 피부염등으로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으니, 가급적 손으로 건들지 마시고 가까운 피부과 또는 피부샵으로 내원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수가 있겠지요.

마지막으로 격하게 세안하는 행위입니다. 피부에 트러블이 있거나 진한 화장을 한 경우 피부표면에 있는 잔존물 등을 씻어내기위해 손으로 박박 문질러서 격하게 세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심한 자극이나, 마찰은 피부를 민감하게 합니다. 조심스럽게 빙판위를 걷듯이 아주 살살 해야 합니다.

SKIN & EYE 만의 특화된 것이 있다면?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요즘 군산경기가 너무나 팍팍합니다.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피부샵을 내원해서 관리를 받고는 싶지만 가정 안팎으로 돈 쓸데가 많아서 정기적으로 내원이 쉽지가 않지요.

이런분들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바로 DIY(do it yourself) 프로그램 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집안 냉장고에 있는 채소나 과일 있지요. 이런 채소나 과일류를 직접 저희 샵으로 가져와서 천연화장품을 만드는 거지요. 저희샵에서는 기술과 원료를 제공하고 고객이 직접 만든 천연화장품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이지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 고객과 샵이 서로 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하고 추후에 마케팅 예정입니다.

앞으로 목표가 있으시다면?

고객이 행복하고 만족하는 샵, 피부관리 사업의 표준적 모델샵으로 성공시키고 싶습니다. 그를 'SKIN & EYE' 를 타이틀로 해서 프랜차이즈 화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샵에서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제가 가진것을 일부 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노인분들에게 무료 피부관리를 정기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두어시간이 훌쩍 넘긴 시간, 벌써 오후 3시이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피부관리에 대한 인터뷰를 했다. 피부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것도 좋았지만, 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겠다는 그의 바람이 꼭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SKIN & EYE' 의 주소는 군산시 수송동 841-6(동수송9길 16) 수송보건소 근처 햇살치킨 2층 이며 영업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10:00시~오후 7:00, 토요일은 속눈썹 예약만 받는다. 문의전화 및 예약은 063-3692-0417로 하면 된다.





“후진 양성에 여생 바친 채금석 선생은 진정한 축구 영웅”

채정룡 군산대 체육학과 교수에게 듣는
축구인 ‘채금석의 삶’

글 | 조종안(시민기자)
chongani@hanmail.net

“고대 문헌에 따르면 한국의 축구 역사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날의 축구와 비슷한 축국(蹴鞠)이 삼국시대에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 시대 청소년들이 가죽주머니 속에 쌀겨나 털을 넣기도 하고, 소 오줌통에 바람을 불어넣어 시험했던 것이죠. 주로 겨울에 많이 했는데, 삼국통일의 주역인 김유신과 김춘추가 축국 놀이를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서양식 축구는 19세기 말 인천에 상륙한 영국함정 수병(水兵)들에 의해 처음으로 이 땅에 소개되죠. 보급은 서양선교사들이 들어와 근대식 학교를 세우고, 기독교단체(YMCA)를 만들면서 시작됩니다. 공식적인 보급 연도는 1905년으로 전해집니다. 이듬해(1906) 3월에는 현양운(공내부 예식원 주사) 등 30여 명이 대한체육구락부를 조직하죠. 이때부터 일정한 규칙 없이 경기를 했으니 우리나라 축구팀의 효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채정룡(64) 군산대학교 체육학과 교수가 전하는 한국 축구의 유래이다. 채 교수는 전북 군산에 축구가 처음 전래된 시기도 서울과 비슷할 거라고 했다. 1896년 봄 군산에 정착한 서양선교사 전킨(한국명 전위령)이 1902년 지금의 구암동에 설립한 영명학교(제일고 전신) 학생들과 교사가 축구를 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는 것. 영명학교는 1911년 축구부가 창단된다. 한국 축구발전에 큰 족적을 남긴 채금석(1904~1995) 선생도 영명학교 출신이다.

채금석 흉상과 기념비에 대해 설명하는 채정룡 교수

채금석 모르는 젊은이들 위해 홍상건립 제의

축구 꿈나무들의 등용문인 '2017 금석배 전국학생축구대회'(2월 11일~23일)가 군산에서 성황리에 치러졌다. 전국에서 111개(초등부 72개, 고등부 39개) 팀이 출전, 자웅을 겨룬 이번 대회에서 고등부는 제주 유나이티드U-18팀이, 초등부는 수원 삼성 U-12팀이 각각 대망의 우승컵을 차지했다. (중등부와 고등부는 격년제로 시행)

금석배는 여생을 후진 양성에 바쳤던 채금석(蔡金錫) 선생의 정신을 기리고, 우수선수 발굴을 목적으로 1992년에 창설됐다. 첫 대회는 채 선생 고향인 군산에서 펼쳐졌다. 이후 익산, 전주 등을 순회하며 열리다가 2009년 대회부터 군산에서 개최해오고 있다. 금석배는 국내 유일의 초중고 학생 종합대회로 그동안 참가한 선수만 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올 대회에는 차범근 U-20월드컵조직위 부위원장도 채금석 선생 추모식에 참석하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금석배는 26회까지 개최되는 동안 수많은 스타플레이어를 배출했다. 눈에 띄는 선수로는 PSV에인트호벤 소속으로 2011년 미국 프로축구리그 올스타전 MVP를 수상했던 박지성과 국가대표 시절 뛰어난 활약을 펼쳤던 조재진, 아스널 소속 박주영 등. 이제는 한국축구의 미래를 책임지는 전국 대회로 자리매김하였다.

군산의 축구 역사와 채금석 선생의 발자취 등을 알아보기 위해 채정룡 교수를 두 차례(11일, 22일) 만났다. 첫 만남 장소는 금석배 대회 때마다 추모행사가 열리는 채금석 홍상 앞. 채 교수는 채금석 홍상 기념비 설치를 처음 구상하고 제의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대회 때마다 운동장을 찾았는데, 뭔가 아쉽고 한쪽이 허전해요. 그러던 어느 날 채금석을 모르는 세대가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공간과 조형물(홍상, 기념비 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해서 체육에 관심이 많았던 아버지(채의석 전 이리시장)에게 말씀드렸죠. 아버지도 좋은 생각이라며 시의회에 건의했고, 군산시와 축구협회가 추

진해서 2005년 홍상과 기념비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매년 개막전에 앞서 추모식이 열리고 있죠."

채금석은 천부적으로 재능을 타고난 분

채 교수는 전북 최초 체육학 박사이기도 하다. 제6대 군산대 총장도 지냈다. 2009년에는 군산문화원이 주최한 포럼에서 경성축구단 선수로 활약하다가 은퇴 후 고향의 축구 발전과 꿈나무 육성에 매진했던 채금석 선생의 발자취를 정리하여 발제하였다. 그는 축구인 채금석이 태어난 자란 고향 이야기와 영명학교 선수시절 활동상도 들려주었다.

채금석 생가로 알려졌던 구암동 건물 (2008년 촬영). 지금은 이조차도 볼 수 없게 됐다.



제1회 금석배 시축을 위해 운동장으로 들어서는 채금석(오른쪽) ©군산시 축구협회



"채금석 선생의 축구 인생은 영명학교에서 시작됩니다. 임피군 북일면(지금의 군산시 성산면 도암리)에서 부친 채규식과 모친 황씨 사이에서 둘째로 태어나 자랐는데, 신학문에 관심이 많았던 할아버지가 영명학교에 입학시키죠. 가게가 넉넉한 편이어서 구암리(구암동)에 집을 마련해 가족 모두가 이사합니다. 그래서 구암동 집을 채 선생 '쌔 터'(생가)로 아는 분들이 많죠. 태어난 해도 1904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1908년(호적)이 맞습니다.

채 선생은 영명학교에서 축구 기초를 다집니다. 작달막한 다부진 체격에 주력이 뛰어나 곧바로 선수단에 합류하죠. 영명학교 축구팀은 호남지역 기독교계 학교 및 청년회 팀과 대항전을 갖는 등 활동이 활발했습니다. 3년(1922, 1923, 1924) 연속 전 조선축구대회에 참가했는데 이렇다 할 성적은 거두지 못했죠. 하지만 개인 채금석은 그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채 선생은 천부적으로 재능을 타고난 분 같습니다."

채 교수 말마따나 열정과 기량을 겸비했던 채금석은 1920년 창단된 평화축구단 선수로도 활약한다. 평화축구단은 선수 20여 명으로 구성된 군산 최초 조선인 체육단체였다. 연습은 영명중학교 운동장, 화강정미소 마당 등에서 하였다. 채금석이 이끄는 소년팀은 1923년 4월 이리(익산)에서 개최된 전라북도 부군대항(府郡對抗) 소년축구대회에서 우승하는 쾌거를 이룬다. 평화축구단은 1930년 7월 출범하는 군산체육회의 모체가 되기도 하였다.

올림픽 후보로 발탁되지만, 일경 구타사건 밝혀져 탈락

채금석이 전국으로 명성을 떨치는 시기는 1923년이였다. 그해 열린 전조선 축구대회에 출전, 뛰어난 패스 감각과 빠른 주력으로 두각을 나타냈던 것. 실력을 인정



1960년대 후반, 구암동 집에서 애제자 강철 선수와 기념사진 (강철은 한양공고를 거쳐 2년 연속 청소년대표로 뛰었고, 연세대 주장을 지냈으나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부상으로 아깝게 탈락한 불운의 선수였다. 1979년 미국으로 이민.) © 강철



군산 평화축구단 소년팀, 뒷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채금석 © 군산시

받아 서울 YMCA 청학관을 거쳐 1925년 경신중학(5년제)에 입학한다. 청년 채금석은 김용식과 함께 경신중학 축구를 이끌었다. 조선축구대회 2년 연속 우승을 견인, 유망주로 평가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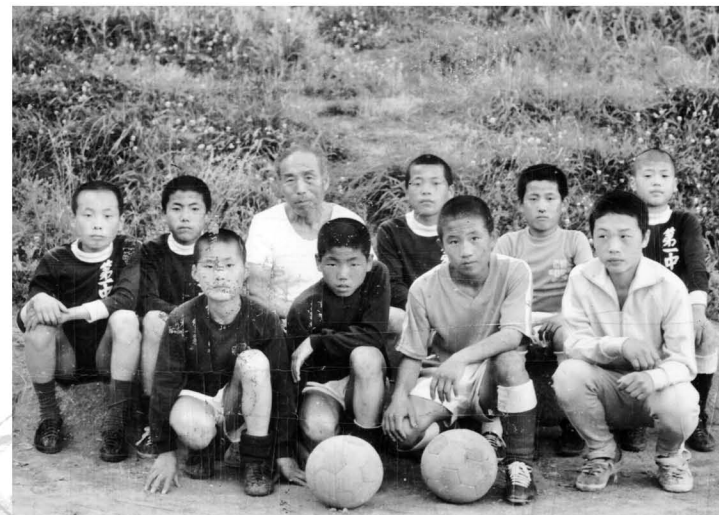
“경신중 주 공격수로 전국대회를 몇 차례 석권하는 등 김용식과 함께 큰 활약을 보이다가 4학년 때 일경을 구타한 사건으로 퇴학당하죠.(1985년 모교를 빛낸 인물로 선정되어 경신고에서 명예 졸업장 받음.)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운동에 전념, 1930년 11월 경성운동장에서 열린 경·평전(경성·평양 축구대항전)에 레프트윙(LW)으로 뛰니다. 그때 경성팀 우승(전적 2승 1패)에 일조하죠. 1933년 4월 평양에서 열린 경·평전(전적 1승 1무 1패)에서도 선전을 펼칩니다. 그 후 볼(ball)보다 발이 빠른 선수라고 해서 ‘오토바이’라는 별칭이 따라다녔죠.

제15회 전 조선종합경기대회(1934)와 제1회 전조선축구선수권대회 경성축구단의 우승을 이끌죠. 중국과 일본 원정경기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보여줍니다. 1935년 일본에서 개최된 제8회 명치신궁경기대회 겸 베를린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2관왕의 주역이 되죠. 그때 베를린올림픽(1936) 후보로 발탁되지만, 일경 구타사건 경력이 밝혀져 탈락합니다. 경신중 시절 의형제를 맺었던 김용식 선생만 출전하죠.”

“채금석은 한국 축구의 진정한 영웅”

경성축구단에서 14년 동안 활약한 채금석은 은퇴 후 귀향한다. 그는 군산시 축구팀(일반부), 구암동 축구팀(청소년), 배달성냥회사 축구팀, 영명고등학교 축구팀, 구암초등학교 축구팀 등을 만들고 지도하는 등 고향 축구발전에 매진한다. 새벽마다 볼을 들고 운동장을 찾았던 채금석, 그는 쉰셋 나이에 전국체육대회 전북대표팀(일반부) 선수로 출전하는 전무후무한 기록도 남긴다.

“채 선생은 평생을 축구공과 함께 살아온 분으로 고향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비록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운동장을 누볐지만, 승리의 의미만이 아니라 축구 경기의 표상을 뛰어넘어 하나의 정신적 의미를 심어준 것이죠. 지금도 그를 아는 시민과 체육인들에게 벅찬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군산 사람들이 의로계 인물로 농촌 보전에 생애를 바친 이영춘 박사(1903~1980)를, 체육계 인물로 채금석 선생을 꼽는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죠.”



손자 같은 제자들과 기념사진 찍는 채금석(1970년대) © 군산시 축구협회

채 선생은 젊어서부터 술과 담배를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든을 넘긴 나이에 아침 일찍 제일고 운동장을 찾아 학생들을 지도했지요. 개인기가 조금만 돋보여도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등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칭찬 한마디가 한 젊은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우는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게 제 교육관이어서 그런지 더욱 가슴으로 다가옵니다.”

채 교수는 “팔순을 넘겨서도 매일 새벽 운동장을 찾아 어린 선수들을 지도했던 채금석 선생이야말로 한국 축구의 진정한 영웅 아니겠느냐”라며 “진즉 고인이 됐지만, 축구를 지극히 사랑했던 마음과 진로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유소년 선수들의 매니저 역할을 자임했던 그 정신은 후세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정룡 교수는 군산시 성산면 출신이다. 1983년 군산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로 부임, 학생과장, 학생처장 등을 거쳐 제6대(2010.3~2014.2) 총장을 지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 한국대표팀 단장, 한국 운동과학회 부회장, 대한운동사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운동생리학회 상임이사 겸 편집위원, 전북체육회 감사, 전북애향운동본부 이사 등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스포츠의학 입문>(1997), <인간과 스포츠 의학>(2001), <운동생리학>(2007) 등이 있다.

왼쪽부터 고대영 고문, 채군석, 김미정, 추선희, 문정현, 안근, 김관태 부회장, 노용주 총무, 문수영, 김두현 강사, 김기향 재무, 노성진 회장, 홍성호, 전용기

군산역사 사랑회

‘불주사(佛住寺)’ 탐방기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노성진 회장



군산 권역 곳곳에 숨은 선대 사회의 변천과 흥망성쇠의 과정을 더듬어 보고 그에 따른 사료적 의미를 찾아 우리지역을 바로 알아보자는 취지로 창립된 ‘군산역사사랑회’(이하 ‘군역사’/ 회장 노성진)가 지난 1월21일 ‘불주사’를 탐방했다. ‘군역사’는 관련 학자 및 뜻을 같이하는 일반인들로 결성된 순수 민간동호회로 2014년도 신시도, 대야 탐동마을, 골샘약수터, 죽봉선생 묘소, 내초도 금돈시굴 등을 탐방하는 것으로 출범, 4년째에 이르는 이번의 불주사까지 어느덧 16차 탐방을 맞았으며, 회장에 노성진(전직 교장), 부회장 김관태(중등교사/향토사학자), 총무 노용주(전직 교장), 재무 김기향, 책임강사 정기문(군산대 사학과 교수), 김두현(중앙고 역사 교사), 그리고 고문 고대영(바다해설사)으로 집행부를 구성, 활발히 모임을 이끌고 있다.

나포면 망해산(望海山) 자락에 자리한 불주사는 백제 말기 창건설도 있으나 자세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으며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 117호로 등록된 자그마한 사찰로서 원래 ‘불지사(佛智寺)’라 했다가 ‘부처가 살고 있는 절’이라는 의미에서 ‘불주사(佛住寺)’로 개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일주문의 현판에는 축성산 불주사(鷲城山 佛住寺)라 써어 있는데(鷲자는 자전에 ‘취’로 되어 있으나 불교에서는 ‘축’으로 읽는다함), 망해산은 서해를 바라보고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서 산의 형세와 아름다움이 석가모니가 수도 설법하던 인도의 영취산과 흡사하다하여 취성산이라고도 한다. 사찰의 구조를 보면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주심포식 팔작지붕 형태이며 전체적인 건축 양식은 다

포식 계통의 기법을 따르고 있다. 또한 기단 위의 기둥은 가운데만 굽게 한 배흘림 형식으로서 앞면 가운데 칸은 아(亞)자형 문이고, 양 끝 칸은 2작 문으로 되어있으며 내부는 천장을 우물 모양으로 평평하게 만들고 바닥 역시 물마루 모양으로 만들었다. 사찰의 연대는 후에 대웅전을 보수하던 중 ‘송정(崇禎)三年二月’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막대 기와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인조 8년(1630)무렵 창건(創建)했거나 혹은 중수(重修)를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의견에 설득력이 실리기도 한다.

대웅전(大雄殿)

사찰의 본전(本殿)인 대웅전을 중심으로 주변에 영산전(靈山殿), 범종각(梵鐘閣)등의 건물이 배치되어 있는데 대웅전의 주련(柱聯) 쇠귀는 가이 없는 부처의 도량(度量)을 읊은 법문일 터여서 탐방객들 모두 잠시 발길을 멈추고 심오한 그 의미를 헤아려 보기도 한다.

佛身普遍十方中 불신보편시방중 : 부처님은 우주에 가득하시니
 三世如來一切同 삼세여래일체동 : 삼세의 모든 부처님 다르지 않네
 廣大願雲恒不盡 광대원운항부진 : 광대무변한 원력 다함이 없고
 汪洋覺海妙難窮 왕양각해묘난궁 : 넓고 넓은 깨달음의 세계 헤아릴 길 없네

영산전(靈山殿)

영산전은 망해산 자락 북동쪽을 향하여 남쪽 가장자리에 위치, 대웅전과 요사채, 종각이 대웅전 앞마당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서쪽 옆으로는 삼성각이 자리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경사도가 큰 지형으로서 높게 단을 이루어 조성한 화단 사이의 긴 돌계단을 통해 대웅전 앞마당으로 연결 되고, 옆의 경사로를 통해 삼성각으로 이어진다. 영산전은 근래에 조성된 작지 않은 규모의 불전으로 화려하게 처리된 목구조 형식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이는 전통 양식과는 구별되는 부분으로서 내부에는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모습의 편안한 16나한과 사자상이 봉안되어 있다.

(영산전 주련)

山堂靜夜坐無言 산당정야좌무언 : 산사의 고요한 밤에 말없이 앉으니
 寂寂寥寥本自然 적적요요본자연 : 적막한 산사는 본시 자연인데
 何事西風動林野 하사서풍동임야 : 서풍은 어인 일로 임야를 흔드나
 一聲寒雁唳長天 일성한안려장천 : 외로운 기러기 소리 넓은 하늘에 우네

회원 중 15명이 참가한 이날의 행사는 아침 10시 경 월명체육관 앞 주차장에서 집결하여 나오면 대동리 황익룡 묘비 탐방을 시작으로 불주사에 올랐는데 사찰에 관한 해설은 김관



황익룡 묘비

태 부회장이, 그리고 묘비와 관련해서는 김두현 강사가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망해산에 올라 신년하례식과 단배식을 가진 뒤 하산하여 식당에서 맛있는 찜밥과 된장찌개로 다 같이 점심을 먹은 뒤 해산함으로써 일정을 마쳤다. 회원들은 각기 직업도 성향도 다양하지만 근내 사적지를 찾아 역사 공부도 하고 서로 간에 친목 도모와 함께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게 되어 너무 좋으면서 공기 맑은 자연에서 얻는 심신의 힐링은 덤으로 얻는 또 다른 즐거움이라고 말하고 있다. 참고로 군역사의 향후 탐방 예정 일정은 아래와 같고 관심 있는 지역민들의 입회는 성별과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



비문 강의중인 김두현 강사

군역사 2017탐방 계획(안)

- 3/18(토) 박지산성, 옥산 금성리
- 5/27(토) 남궁 찬 묘소
- 7/29(토) 서천식물예술원
- 9/30(토) 군산 구세군(개신교 바로알기)
- 11/25(토) 김제 벽골제, 아리랑문학관

‘군산역사사랑회’(연락처)

노용주 총무 010-8646-3258
 고대영 고문 010-3659-9811



망해산에서 내려다 본 금강

오케스트라에
지휘자가 있다면
음식에는
푸드코디네이터가 있다.

글 | 온승조(컬럼니스트)
gsforum@hanmail.net

푸드코디 네이터란,
TV나 영화, CM의 식품에 관련된
연출이나 요리전문잡지의 요리페이지의
기획, 편집, 음식점의 메뉴개발, 요리교실이나
각종 세미나의 기획, 운영이나 강의, 시장조사,
다이어트 컨설팅 등의 음식에 관련된 비즈니스
전반의 일을 하는 '음식의 연출자'라고 할 수 있다.
군산 오룡동에서 '쿠킹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차선미 대표를 만났다.

푸드스타일리스트와 푸드코디네이터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얼핏보기에는 비슷
한 사람들 같은데 ... 특별한 차이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푸드스타일리스트와 푸드코디네이터가 구분되어 활동영역이 정해
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푸드스타일리스트와 푸드코디네이터의 영역이 구
분되어 하나의 전문직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일본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전문직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푸드스타일리스트와 푸드코디네이터
를 굳이 구분한다고 한다면, 푸드스타일리스트는 요리에 어울리는 식기를 골라 보기 좋게 담
고, 그에 어울리는 소품을 곁들이는 일에 국한되지만, 푸드코디네이터는 이를 포함하여 음식
에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연출합니다. 즉, 푸드코디네이터의 영역이 푸드스타일리스트보다는
좀 더 광범위하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요리는 어떻게 시작하셨나?

저는 군산에서 태어나 군산에서 자란 토속 군산인입니다. 어릴적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사춘기를 보냈고, 그러다가 음식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어 군산문화 요리학원에서 이승연
선생님(현재 명문요리학원)으로부터 한식조리를 배우게 되었고, 한식조리기능사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공부가 아닌 다른 인생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던 중 미국 뉴저지에 있는 작은아
버지 댁에서 지내면서 서양요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행복한 생활을 한 것은
아닙니다. 췌마침 911사건이 발생했고, 작은아버지 직장의 위기로 인해 테네시주 잭슨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시골생활을 하다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음식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식지 않아 서해대학에 호텔조리영양학과를 진학하고 졸업하면서 ‘푸드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이 직업의 전문성을 습득하기 위하여 무작정 일본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일본어는 히라가나 정도만 알고 무작정 도쿄로 떠났는데, 어학연수만 6개월동안 독하게 공부했고, 먹고 자고 일본어 웃음 그냥 언어 습득에 최선을 다했고 그런 노력의 결과로 JLPT 3급과 2급을 취득하고 도쿄세이신요리전학교 푸드코디네이터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학교생활도 아름답고 예쁘게 한 것은 아니죠 ... 당연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전철을 두 번 갈아타고 왕복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를 옮겨 다니며 공부했고, 저녁에는 이자카야에서 6시간씩 일을 하면서 학교를 마쳤습니다. 다시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웃음) 그래도 가끔 비가오면 도쿄생각이 간절할 때도 있어요. “도쿄는 비오는 날이 많은 도시거든요.”라며 지난 시절을 회상한다.

지금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

지금은 쿠킹미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서해대학에서 푸드코디네이터 강의를 하고 군산여고 요리동아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쿠킹미 스튜디오는 규모도 작고 많은 인원을 한번에 강의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한기수별로 4-5명 정도를 받아 주 1회씩 음식교육을 하는 정도입니다.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아 찾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 음식과 푸드코디네이터라는 직업에 대해 널리 알리는 것이 또 하나의 사명감 같은 게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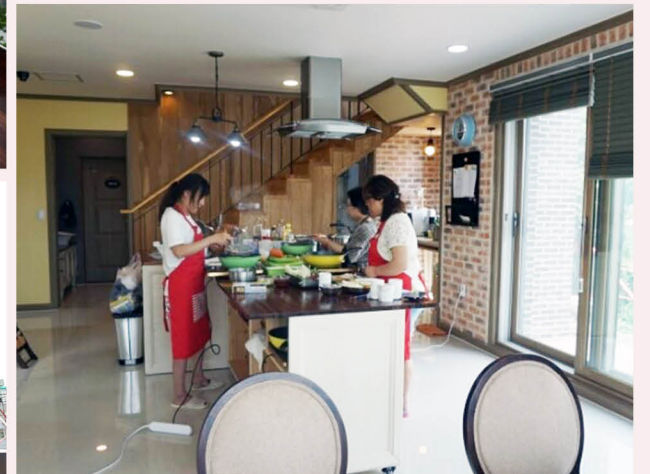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자신만의 음식문화를 찾고 색다른 건강한 음식을 찾는 문화가 유행처럼 전지고 있습니다. 요즘 티비에서 흔히 먹방 대세라고들 하죠... 그런데 이 음식과 관련한 직업 즉, 푸드업계에서 직업을 선택한다면 요리사, 요리연구가, 레스토랑 프로듀서, 영양사, 스타일리스트, 코디네이터 등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마냥 음식하면 조리사로 생각하는 좁은 틀을 깨어주고, 음식과 음악, 음식과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접목과 개발이 무궁한 영역이라는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음식을 주제로 직업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음식을 내손으로 직접 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을 이미 하나 갖고 가는 것이니까요.

저와 같이 공부에 흥미가 없었던 사춘기나 청년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살아가는 방법 중 공부 아닌 다른 길도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고 또 보다 넓은 곳으로 안내를 하는 사람이 되어 볼 생각입니다. 물론 음식을 접하면 그에 관한 공부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요 ...

푸드코디네이터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현악, 목관, 금관, 타악 등의 분야가 한데 어울어져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관현악단)가 되고 이 오케스트라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사람이 지휘자 인 것처럼, 음식에 관하여 다양한 음식문화를 융합하고 어울어지게 하는 역할을 통해 ‘사람이 행복한 음식’을 창출하는 사람이 푸드코디네이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흔치 않은 직업이지만 비전과 자부심이 있는 일이니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기를 바래본다.



쿠킹미스튜디오
차선미 대표
전북 군산시 오룡재길 20-21
063-442-2215



연극배우 강나루 씨

“기생 장금도 일생, 연극으로 만들고 싶어”

군산의 마지막 예기 장금도 구순연회 뒷이야기

글 | 조종안(시민기자)
chongani@hanmail.net



강나루씨와 장금도 명인



케이크커팅 하는 한준수 부시장, 박정희 시의회의장, 장금도 명인, 신명숙 교수(왼쪽부터)

국내 유일의 민살풀이춤 전승자 장금도(1928~) 명인이 올해 구순을 맞는다. 춤추는 해어화(解語花), 이 시대 마지막 예기, 명무(名舞) 등 다양한 수식어가 따라 붙는 장 명인은 열두 살 때 군산 소화권번에 입소, 회초리를 맞아가며 예의범절과 가무(歌舞)를 익힌 이 시대 마지막 ‘쌔기생’이기도 하다.

장금도 명인은 2016년 7월 <군산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2015.04.30)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군산시 향토문화유산 제20호로 지정됐다. 당시 군산시는 ‘개인의 삶과 애환을 넘어 역사의 질곡을 담아내는 시대의 몸짓이며 훈이 담긴 예술성이 높은 춤’으로 평가하며 ‘장금도 선생은 현존하는 민살풀이춤(전라도 지역의 전통 살풀이춤)’ 유일한 계승자이므로 보유자로서 지정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정 내역을 밝혔다.

지난 16일 군산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장금도 명인의 구순연(오찬)이 열렸다. 이날 연회는 한준수 군산시 부시장, 김봉곤 문화예술과장, 박정희 군산시의회의장, 이복 시의원, 이진원 군산문화원장, 황대욱 군산예총 회장, 이진우 <매거진군산> 대표, 문정현 아리울역사문화연구회(사) 대표, 연극배우 강나루 씨 등이 참

석해 장 명인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했다.

장금도 명인의 며느리(아들은 월남전 참전용사로 고엽제 후유증을 앓다가 2008년 고인이 됨) 손녀, 제주도에서 사는 장 명인의 동생, 인천에 사는 조카 등 가족도 참석해서 기쁨을 함께 나눴다.

이날 오찬은 신명숙 대전대학교 무용학부 교수(학부장)가 마련하였다. 신 교수와 장 명인은 18년째 ‘사제의 연’을 맺어오고 있다. 신 교수는 “30년 가까이 은둔 생활을 하시던 선생님이 작년 7월 군산시 향토문화유산 제20호로 선정된 것에 감사드리고 선생님의 구순을 기념하기 위해 조촐하게나마 오늘의 자리를 준비했다”고 인사했다.

박정희 군산시의회의장은 “기생들을 천시하던 1960~1980년대 장금도 선생님과 저의 어머니는 친목계 회원으로 형님·아우하고 지내는 사이였다. 작년 3월 하순 손님과 미즈커피(장금도 사진전시장)에 갔다가 50여년 전 속리산 범주사에서 찍은 친목계 회원들 단체 사진이 전시된 것을 보고 감회가 새로웠다”며 ‘목욕탕집 딸’로 불리던 여고시절 추억을 떠올렸다.

이노우에 교수, “조선 기생은 신여성”

2016년 한 해 동안 군산에서는 장금도 명인 관련 행사가 봄·가을 두 차례 열렸다. 특히 <마지막 예기 장금도의 춤 재발견>이란 주제로 치러진 3월 26일 행사는 장금도 명인의 일생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사진전시회와 즉석 토론회를 곁들여 의미를 더했다. 장미공연장은 계단까지 빈자리가 없이 만원을 이뤘고, 미즈커피(북-카페)에서 열린 사진전은 전시 기간을 15일 연장 전시할 정도로 호응이 뜨거웠다.

일본 가고시마국제대학 이노우에 가즈에(井上和枝) 교수는 “조선 기생의 사회적 위치와 권변과 기생에 대한 논문 자료를 준비하던 2016년 2월 <오마이뉴스>에서 장금도 생애 관련 기사를 읽고 글을 쓴 기자를 만나기 위해 군산에 왔다”며 일제강점기 군산의 예기들 활동과 권변 문화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이노우에 교수는 “기생 잡지 <장한>(1927년 1월 창간)을 중심으로 식민지 조선 기생의 사회적 위치와 자기 변혁 등을 연구하면서 조선 기생은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독립운동에도 참여하였고, 자신의 존재를 강하게 나타내는 기생도 존재했음을 알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조선의 기생은 신여성임과 동시에 근대조선의 현대사를 말할 때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고 평가했다.

군산시 명산동에 남아 있는 유곽 내실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이노우에 교수



군산을 다녀간 후 기자와 메일로 안부를 주고받던 이노우에 교수는 5월 초에도 1박 2일 일정으로 군산을 방문했다. 그는 첫날 장금도 명인 사진전시를 관람하고, 저녁에는 ‘군산학’ 강의를 수강하였다. 이튿날에는 기자의 안내로 옛 소화권번 자리, 명월관, 명산동 유곽 단지, 동국사 등을 돌아봤다.



군산시 향토문화유산 지정서를 보며 활짝 웃는 신명숙 교수(왼쪽)와 장금도 명인(오른쪽)



전시장에 걸린 군산소화권번 예기들 단체사진(1939년)

“전북 무형문화재 지정반도록 관심 가져야”

문정현 대표는 “작년 3월 군산 장미공연장 공연 때 장금도 명인의 춤사위를 처음 봤다.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의 권유로 허리가 할미꽃처럼 굽은 할머니가 신발까지 벗고 유연하게 열정적으로 춤추는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나왔는데, 오늘도 가슴이 울컥해지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장 선생님은 ‘군산의 보물’이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관심과 사랑으로 기억해야 할 소중한 지역 무형문화재”라고 말했다.

이진원 군산문화원장과 황대욱 군산예총 회장은 “예술의 전당과 국립극장 <명무전> 등 다양한 중앙무대에 초대됐고, 프랑스·일본 등 해외 초청공연도 다녀온 장금도 선생이 지금까지 생존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며 “군산을 민살풀이와 권변 부채춤의 본고장으로 만든 장금도 선생이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군산시는 2016년 7월 장금도 명인을 향토문화유산 제20호로 선정하고, 9월에는 민살풀이춤 관련 구술조사 및 자료 수집에 들어갔다.

김봉곤 군산시 문화예술과장은 “과업(구술조사 및 자료 수집) 목적은 민살풀이춤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학술 및 고증자료 등을 수집하고, 민살풀이춤 보유자인 장금도 선생의 구술조사 및 사진, 동영상 자료 등을 취합하여 우리 지역 향토문화유산인 민살풀이춤에 대한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함으로 ‘자료집’은 2017년 봄쯤 완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상과 화해의 살풀이판을 열어드리고 싶었다”

극단 <동당애> 연출가로도 활동하는 강나루(44) 씨는 “장금도 선생님은 오래전부터 꼭 한번 찾아뵙고 싶었으나 거주지를 몰라 아쉬워하던 차에 구순연회에 초대받고 감격스러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금도 명인은 진옥섭의 <노름마치>라는 책을 통해 알았다. 다른 예인을 보기 위해 펼쳤는데 첫 장에 선생님이 수록되어있었다. 책에는 저자의 극찬도 있었지만, 군산분이셨기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궁금하여 ‘장금도’를 검색하자 놀랄만한 사실들이 펼쳐졌다.



1960년대 중반 속리산 법주사에서 친목계원들과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얼굴을 가린 사람이 장금도 명인)

장금도 명인은 군산 소화권번에서 매우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춤과 소리 교육을 받았고, 조선 여자들을 위안부로 잡아간다는 소문에 일찍 결혼했다고 한다. 한국전쟁 후 생계를 위해 잔칫집에 나가 춤을 추었는데, 아들이 반대하자 은둔생활을 하였다. 뛰어난 예인임에도 자신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에게 '장금도는 죽었다'고 말할 정도였으니 춤에 대한 미련, 그 뿌리까지 뽑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예인이기 전에 어머니였기에...

현대 전통무용들이 형식화된 것과 다르게 그녀의 춤은 그 시대를 그대로 보존하듯 담백하고 정갈하다. 고요한 듯 엄청난 에너지가 내재된 장금도의 민살풀이는 귀중한 근대 문화유산이다. 그녀의 춤을 보고자 군산을 방문한 기자들과 무용가, 교수들이 이를 증명한다. 그들의 끈질긴 설득으로 그녀는 가족 모르게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등 명인·명무전 무대에서 공연했고 <전무후무>라는 타이틀로 프랑스 초청공연도 다녀왔다.

그러나 여전히 고향 군산에서는 당당히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군산 사람들은 남다른 콤플렉스가 있었다. 일제강점기 수탈의 흔적이 강하게 남아 있는 도시라서 그런 것 같다. 군산에서 태어난 나 역시 그랬다. 그러나 군산의 근대역사에 대한 공연(근대역사박물관 상설공연, 3·5 독립만세운동 등)을 준비하면서 저항의 역사가 더 생생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고향에 대한 자긍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문화예술 또한 예외가 아니다.

사회적 편견으로 춤을 반대했던 장금도 명인의 아들은 이제 하늘에 있고 구순의 그녀는 요양원에 있다. 한시대를 풍미했던 민살풀이 명인에게서 나비처럼 자유롭게 춤출 무대와 공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녀의 춤 보존과 계승은 지자체와 무용가들의 몫이겠지만 그녀의 지난했던 삶을 재조명하고 위로하는 건 연극의 몫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래서 눈물과 한(恨)으로 점철된 그녀의 인생을 연극으로 준비하려 한다.”

강나루 씨는 “권번 출신 기생들은 공연예술의 명맥을 이어온 분들임에도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본다. 것처럼 잘못 알려진 기생 이미지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시대의 희생양이 된 장금도 명인의 일생을 연극으로 만들고 싶었고, 냉대했던 세상과 화해의 살풀이판을 열어드리고 싶었다.”며 “민살풀이는 국내 유일의 전통춤으로 군산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될 것”이라고 고 덧붙였다.



장금도 명인이 관객들의 권유로 춤사위를 보여주고 있다.(2016년 3월 26일)



베트남 다문화가정 설 명절잔치 스케치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왼쪽부터 흥한, 응엔티후에, 황희진, 응엔팅아, 박태연, 박혜나, 황티리엔, 김태희

설 연휴기간인 지난 1월30일 관내 베트남 이주여성 다문화가정 설 명절잔치가 문화동 보훈회관 강당에서 열렸다. 군산 이주 후 처음으로 가진 이날 행사는 약150여 가정의 젊은 엄마들이 자녀들 손을 잡고 나와 실내를 꽉 메울 정도로 북적였다. 군산에 베트남 다문화가정이 본격적으로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5~6년 전으로서 현재 약 1,000여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이날 행사의 후원 기관, 단체로는 '군산여성단체협의회' '월남참전전우회' '시의원' '군산경찰서 외사계' 'KB손해보험' 외에도 '매거진군산'도 초청되어 참석한 내빈들의 축사와 함께 주최 측이 마련한 꽃다발도 전달하는 등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모임의 응엔팅아 회장 및 박혜나 총무에 따르면 이주여성들의 원활한 한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정보교류를 통해 어울리면서 돕고 친목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공식적으로 마련한 첫 행사라 한다. 사실 2년 전인 2015년도 설 명절에 응엔팅아 회장의 수송동 자택에서 소수 인원이 모여 친목 모임을 가진 적이 있는데 이날 모임에서 향후 격년제로 자체 행사를 갖

기로 합의하고, 응엔팅아, 박혜나, 흥한, 응엔티후에, 황희진, 박태연, 황티리엔, 김태희 등 8명의 집행부를 결성, 회장에 응엔팅아, 그리고 박혜나가 총무를 맡기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기획하게 되었다.

응엔팅아 회장은 자국어 인사말에서 "한-베 국가 간의 더욱 공고한 결속과 재한 베트남 사회의 화합과 단결을 다지는 이 자리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우리 모두 집을 멀리 떠난 설 명절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깊고 그들과 함께 했던 설 명절을 추억하면서 서로 간에 애뜻한 연민의 정이 솟고 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사랑과 배려로 지켜봐 주신 여러 단체 후원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베트남 동포 여러분도 이 자리를 계기로 서로 간의 사랑과 우정이 더욱 깊어지기를 기원한다. 아무쪼록 잠시나마 타향 살이의 시름을 잊고 활력을 재충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요지로 행사의 의미를 피력했는데 곧 이어 남녀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베트남 전통 부채춤, 행운권 추첨, 사진촬영 등으로 행사가 이어지고 집행부에서 별실에 따로 마련한

왼쪽 박혜나 총무, 오른쪽 응엔팅아 회장



베트남 전통 부채춤



베트남 뷔페 음식들도 줄을 지어 먹을 정도로 인기였다.

이번의 행사는 이주여성들의 단체 고국 방문을 매 2년마다 격년제로 갖기로 함에 따라 작년에 모두 다녀온바 있어 고국에 못 가는 올해의 경우 거주지인 군산에서 명절을 설 수밖에 없어서다. 베트남은 연 중 설이 가장 큰 명절로서 닻새에서 많게는 열흘까지 연휴가 지속되기도 하는데 이 때 떨어져 살고 있는 모든 동기간을 찾아다니며 즐겁게 보낸다. 명절 기간이 긴 것은 인구 약 1억 명에 국토 면적만도 남한의 약 3배반에 달할 정도로 큰데다가 고속도로망이 잘 갖춰진 우리와 달리 도로나 운송 여건이 열악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이동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똑 같이 음력설을 쇠며 가족이나 어른을 찾는 명절의 풍속은 비슷한 면도 있다.

다문화 이주민들이 제2의 조국으로 정착하는 동안 한국에 대해서 보고 느낀 소감을 묻자 응엔팅아 회장이나 박혜나 총무 공히 '한국인들은 친절하고 인정이 있다'며 '언젠가 서울에 갔을 때 지하철 타는 요령을 몰라 찢찢매는 보고 선뜻 나서 도와주는 사람 덕에 어려

움을 덜 수 있었다'는 말과 함께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과 후원도 많아 행사를 개최하는 데 큰 힘이 됐다'는 말을 들려주기도 한다.

베트남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와는 아픈 인연을 공유하기도 한 베트남. 그러면서도 고유의 문화 보존과 강한 민족성 등은 서로 간에 동질감을 느끼게 해 주는 부분이다. 특히 베트남은 오랜 동안 강대국의 식민 지배에 시달린 고통의 역사도 지녔지만 강인한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끝내 외세를 몰아내고 자주독립을 이룰 만큼 끈질긴 민족성의 국가이기도 하다. 이제 한국에 새롭게 동지를 틀고 있는 많은 이주여성들로 한국과 베트남은 국가적으로 사돈관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그 사이에서 양국의 DNA를 모두 지니고 태어난 2세들은 장차 한국인으로서 폭넓게 뿌리를 내릴 것이고 사회적 역할도 증대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우리가 그들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고, 꼭 내 것만이 옳다는 식의 편협한 배타주의가 아니라 서로 간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이해할 줄 아는 긍정심이 무엇보다 앞서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 2017 전북방문의 해 선포! 군산 관광 박차!!

트래블마트(Travel Mart)행사 참여 속 '군산관광세일' 본격 시동

한국관광100선, 테마여행10선 등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기대

군산시는 지난 28일 서울 포시즌 호텔에서 개최된 「2017 전북 방문의 해 선포식」에 전북도, 군산시를 포함 14개 시군 단체장과 관련 여행사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관광 관련 종사자 등 참여자들의 열띤 호응 속에 진행된 이번 선포식은 전북관광 광역화의 핵심인 '전북투어패스 소개'와 '전북도의 주요 관광지'를 알리는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또한, 전북도는 '2017 전북방문의 해' 홍보대사로 '정글의 법칙'에 출연 중인 김병만 씨를 위촉하여 대내외에 이를 적극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산시에서는 이번 2017 전북방문의 해 선포식을 기점으로 300만 관광객을 목표로 한 홍보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고, 시의 핵심 과제인 관광광역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각오를 보였으며, 14개 시군과도 공동마케팅을 위한 여러 가지 관광상품 개발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협의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시 관광부서에서는 이번 전북방문의 해 선포식과 더불어 여행상품 판매자와 1:1 상담을 통해 전국최대의 근대문화유산과 천혜의 비경 고군산군도를 품은 군산의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트래블마트(Travel Mart) 행사에도 적극 나서 참여 여행사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축사를 통해 "2017 전북방문의 해 선포식을 계기로 관광도시 군산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주력할 것"이라 전하며, 전북도와 14개 시군과의 공동마케팅을 통해 방문지역을 확대하는 등 일명 '더더더 토탈관광'을 실현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한해 한국관광 100선에 15~16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글로벌 관광상품 육성사업 선정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올해 역시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완전 개통 등에 대비한 해양관광 기반 시설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 근대문화유산과 해양관광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상품 마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 2017년 군산시 살림살이 한눈에...

군산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4개 분야 16개 항목 공시

군산시는 지난 2월 28일 2017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자료를 군산시청 홈페이지(행정정보-재정공시)에 공개했다. 군산시의 재정공시는 지방재정운영상황 공개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동을 실현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공시내용은 올해의 예산규모, 재정여건, 재정운용계획 등 4개 분야 16개 항목으로 나누어 공개하고 있다. 군산시의 2017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함한 9,226억 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42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9,904억 원보다 678억 원이 적은 규모로 나타났다. 일반회계기준 세입예산의 자체세입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4.7%,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족도는 56.09%이며, 자체 수입이 적고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재정구조로 나타났다. 군산시 관계자는 "2016년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는 8월말로 계획하고 있으며, 지방재정공시제도를 통해 주민의 알권리 보장은 물론 군산시 살림살이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하며, "지방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확충과 예산 절감 등을 지속 추진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어린이·청소년 정책, 우리 손으로 정할 거예요

군산시, "2017년 제2대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 공개 모집

군산시는 「2017년 어린이·청소년의회」에 참여할 어린이·청소년 의원 후보를 공개 모집한다. 지난 2월 28일까지의 임기를 마친 2016년 제1대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정기회 2회, 임시회 5회의 바쁜 회기 일정을 순조롭게 마감했으며, 의원으로서 참여한 어린이와 청소년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직접 의회 경험을 한 것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감을 표실했다. 새롭게 의회를 구성하게 될 제2대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어린이의원, 청소년의원 각각 30명 이내로 모집할 계획이며, 어린이의회의 모집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에 재학 중인 어린이, 청소년의회는 관내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이다. 접수기간은 3월13일(월)부터 3월17일(금)까지며, 시에서는 어린이·청소년 의원들의 거주지(농촌지역) 및 성별 등을 고려하고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 다양한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성근 어린이행복과장은 "군산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시의 교육, 복지, 안전 등에 관한 정책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논의하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 전하며, "앞으로도 참여의 권리가 보장되는 어린이 행복도시 군산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www.gunsan.go.kr)를 참고하거나 어린이행복과(☎ 454-4172)로 문의하면 된다.

■ 군산시, 관내 전북투어패스 특별할인 가맹점 123개소, '손님맞이 준비' 교육실시

시청 직원 먼저, 전북투어패스로 떠나는 적극적 행보!!

전라북도도는 지난 28일, '2017년 전북방문의 해 선포식'을 갖고 전북도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며 전북투어패스를 통한 토탈관광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이에 앞서, 군산시는 지난 24일 전북투어패스의 관내 특별할인 가맹점 123개소, 참석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원도심 내의 근대교육관과 선유도의 특산품판매장에서 2회에 걸쳐 전북투어패스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전북투어패스 사업의 취지와 개요, 투어패스 카드 소지 관광객 응대 요령 등을 참여자들에게 강의하고 질의응답을 받았으며 투어패스 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관련자들의 협조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군산시청 직원들은 전북투어패스 본격 시행에 맞춰 솔선하여 투어패스카드를 구입하고, 직접 투어패스를 이용하여 전북의 주요관광지 투어를 추진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북투어패스는 한 장의 카드로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주요 유료 관광지 60여개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투어패스 가맹점인 맛집·숙박·체험 등에서 최대 50%까지 특별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은 "전북투어패스 사업은 '2017년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군산시의 관광활성화는 물론 300만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적극적인 대내외 홍보활동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 국내 최대 '청소년 박람회' 내년 5월, 어린이 행복도시 군산에서 만나요!!!

군산시, 『제14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유치 성공

최근 어린이 행복도시 군산시가 내년 5월 개최예정인 「제14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내년 14회를 맞는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2018년 5월 중 사흘간 진행되며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 상담, 안전 체험 및 청소년 활동과 연계된 기업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200여개의 체험부스를 통한 문화와 안전 등 다양한 배움·체험거리 제공과 함께 청소년들이 주제가 되는 다채롭고 색다른 장을 준비하여 청소년들의 인식개선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멘토 특강을 비롯해 공모전·포럼·전시회·공연 등 화려하고 차별화된 참여형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의 매력과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어린이 행복도시 군산'의 매력을 청소년들에게 널리 알려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전북도와 군산시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관계기관·단체와 공동으로 TF팀을 구성해 오는 5월 여수에서 열리는 제13회 대한민국청소년 박람회에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2018년 박람회 준비를 위해 행사 진행 및 사후 관리 등을 철저히 분석할 방침

이다. 이를 토대로 군산시민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청소년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광역화, 그리고 MICE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제공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송하진 도지사는 "청소년박람회는 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 유치와 함께 추진하는 청소년의 대축제로 정부 및 청소년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이라 전하며 "2018년 전라도 개도(開道) 천년을 맞이하여 전라북도가 청소년 활동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어린이 행복도시 군산에서 청소년박람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우리시를 방문하는 전국의 청소년들을 비롯한 방문객에게 근대문화유산이 살아 숨쉬고, 동북아 경제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군산의 이미지를 각인 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는 지난 2005년부터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진로를 탐색하는 청소년과 청소년 지도자, 일반 시민 등 15만 여명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대축제로 개최되고 있다.

■ 저녁시간대 군산시립도서관에서 다양한 취미·소양활동 즐겨보세요!!

군산시립도서관, 2017년 상반기 야간문화강좌 운영

군산시립도서관에서는 2017년 3월 13일부터 6월 7일까지 3개월간 운영될 2017년 상반기 야간문화강좌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야간문화강좌는 주간에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야간에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이번 상반기는 4개의 문화강좌를 운영한다. 야간문화강좌는 ▲음악으로 생각하는 동화(6-7세 어린이, 8명) ▲타로카드 배우기(청소년 및 성인, 12명), ▲정리수납전문가2급(청소년 및 성인, 12명), ▲어린이생활 중국어(초등학생, 12명)로 구성되며, 오후 6시부터 9시까지(12차시) 매주 월~목요일 주 1회로 운영된다. 야간문화강좌 접수는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사무실 방문 또는 전화접수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http://lib.gunsan.go.kr) 또는 시립도서관 자료운영계(☎454-5642)로 문의하면 된다.



■ 자료 제공_군산시청 공보과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888)

T.063)450-4208 F.063)452-8159

호남제분 주식회사 설립자 이용구 회장, 그의 발자취 (2)

글 | 조종안(시민기자)
chongani@hitel.net

한국전쟁(1950~1953) 이후 한국은 원조경제 시대로 진입한다. 미국에서 구호품으로 들어온 밀가루 포대에는 성조기를 상징하는 별 4개와 두 사람이 굳게 악수하는 그림, 그리고 '미국 국민이 기증한 것. 팔거나 바꾸지 말 것'이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포대의 그림은 우정과 신뢰를 상징해서 '악수표 밀가루'란 이름으로 시중에 나돌았다.

미국이 국내 농산물 가격 유지와 저개발국 식량부족 완화를 위해 보내준 악수표 밀가루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암거래가 성행하였다. 배급소와 종교단체 등에는 밀가루를 배급받으려는 사람으로 장사진을 이뤘다. 지금이야 밀가루로 만든 수제비가 별식이지만 당시에는 절대적인 식량이었던 것. 김혁중(76) 전 동아원 그룹 이사 이야기를 들어본다.

“그때는 미국에서 원조해준 '악수표 밀가루'로 생계를 유지하던 시절이었지. 6·25전쟁으로 대부분 생산 시설이 파괴되어 거리에는 노숙자와 실업자가 넘쳐났지.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완제품(밀가루)을 주지 말고 밀로 주든지 공장을 지어달라고 미국에 요청했던 거야.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 등을 고려해서 그렇게 요구했던 것이지. 국가에서 보증만 서주면 외국 자금을 들여와 공장을 지을 수 있던 시절이었으니까.”

보릿고개 시절(1950~1960년대). 지방

의 작은 항구도시 군산에 밀가루와 사료 대리점이 유달리 많았고, 짜장면·짬뽕 전문 중국음식점을 비롯해 국수공장, 과자공장, 제과점, 찐빵가게 등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것도 호남제분에서 생산되는 상품(밀가루, 사료 등)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호남제분은 국내에서 두 번째로 설립된 제분 회사였다. 1957년 하루 생산 능력은 130톤. 1963년에는 공장을 증설한다. 1966년 당시 생산품은 밀가루, 정미(精米), 정맥(精麥) 등이었다. 그중 밀가루는 대양표(1등급) 등대표(2등급) 등을 하루에 6000포대(22kg) 생산하였다. 직원은 생산직 포함해서 700여 명. 기계시설도 우수했다. 점포망도 전국 주요 도시에 구축하고 있었다. 그 후 제일사료, 한국산업(정미소) 등을 잇달아 설립한다.

정부 요청으로 공장과 본사 목포로 이전

1967년, 그해 전라남도 목포는 제7대 총선의 최대 격전지였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공화당(여당) 후보 첫 지원 유세를 목포에서 가질 정도였다. 유세에서 정국 안정을 역설했던 박 대통령은 중앙정보부와 내부부 간부들을 청와대로 불러 '여당 후보 10명이나 20명이 떨어져도 야당 후보 김대중을 절대 당선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지금은 사라진 호남제분 건물, '제일산업', '동아원' 등이 보인다.(2007년 촬영)

박 대통령은 김대중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관계 장관들을 데리고 목포로 내려와 '목포 개발'이라는 주제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그리고 다양한 장밋빛 공약을 쏟아낸다. 그 속에는 삼학도(국유지) 관리권 목포 이관과 함께 제분공장 설립도 들어있었다. 목포 시내에는 천문학적인 현금과 밀가루가 뿌려졌다. '막걸리로 홍수를 이루고 국수로 다리를 놓았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다.

손꼽히는 향토기업으로 군산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던 호남제분은 박정희 정권의 요청으로 1971년 공장을 목포로 이전하면서 밀가루 생산이 중단된다. 이때 회사는 이용구 회장, 이희섭 사장 체제가 된다. 이희섭 사장은 이 회장의 큰아들로 한국제분공업협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1974년 4월에는 호남제분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본사를 목포로 이전한다. 그해 제일사료 공장도 대전으로 옮긴다.

따라서 군산에는 제일산업 사무실만 남는다. 그 배경에는 정치적 메시지가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아래는 김혁중 전 동아원그룹 이사가 전하는 당시 상황이다.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웠던 시절이었지.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목포에 공항을 만들고, 항구를 정비하고, 조성되는 공업단지에 큰 공장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했지. 그 속에 호남제분이 걸려들었던 거여. 기업은 정부가 죽으려면 죽는 시늉이라도 해야 했던 시절이었으니까. 군산 사람들이 호남제분 목포 이전을 빼앗긴 것으로 인식하는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지.”

그리고 1968년 당시 이용일 경성고무 사장이 군산상고에 야구팀을 만들고, 1971년 전국체전과 1972년 황금사자기를 우승했잖아. 군산에 역전의 명수가 탄생하자 그에 고무되어 한국합판(사장 고판남)은 제일고 축구부를, 백화양조(사장 강정준)는 군산고 농구부를 육성하기로 하지. 호남제분은 군산여상 배구부를 지원하겠다는 배구팀도 만들었는

데 본사가 목포로 떠나버린 것이지. 그래서 군산 시민들의 상실감이 더욱 컸을 거야.”

공장과 본사를 목포로 옮긴 호남제분은 공장을 증설하여(1일 생산능력 1000톤) 국내 3대 제분업체(대한제분, 동아제분, 호남제분)의 하나로 꼽히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1970년대 말에는 제일사료, 일양피혁, 한국농업, 대상, 유성물산, 전진산업, 제일피혁 등 7개 계열사를 거느린 거진 그룹으로 거듭난다.

잘 나가던 이용구 회장은 전두환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했던 1980년 3월 증권거래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다. 호남제분 본사 경리 장부도 압수당한다. 사유는 증권거래소 밖에서 경쟁회사(대한제분과 그 계열회사인 대원제지) 주식을 비싼 값에 대량으로 사들여 경영권을 가로채려 했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은 이 회장이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고, 그해 4월 대한제분 주주총회가 개최되면서 해결된다.

호남제분 역사, 60년 만에 막 내려

이용구 회장은 정치적, 사회적 격변기를 겪으면서도 1979년 4월 자신의 호(芸山)를 딴 학교법인 운산학원(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을 고향에 설립하고, 1981년 1월 이사장에 취임하는 등 육영사업에도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1990년 7월, 전국 시장 공략을 목표로 호남제분을 한국제분으로 회사명을 변경하고, 운산그룹을 출범시킨 이용구 회장은 1993년 4월 일본 게이오 대학



종아니의 발길 닿는 대로

부속병원에서 숙환으로 타계한다. 당시 신문은 이 회장을 충남 논산 출신으로 전진양행, 호남제분, 제일사료 등의 회사를 설립하였고, 한국사료협회 회장을 역임한 신광학원(신광여고) 이사장이라 소개하였다.

운산그룹은 이 회장이 세상을 뜨고 그해 7월 막내아들(이희영)마저 목포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로 숨지는 등 불상사가 겹쳐 일어난다. 그때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미국에 머물던 둘째 아들(이희상)이 경영권을 물려받는다. 이희상 회장은 동아제분을 인수하는 등 밀가루를 주력사업으로 사세를 더욱 확장한다.

부친의 영정 앞에 향을 피우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했다는 이희상 회장. 그는 2013년 검찰수사(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를 받고 환수금 일부를 환수당하기도 하였다. 2015년 초에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 주력 계열사 매각작업을 진행하였고, 2016년 2월 경영권이 사조그룹으로 넘어간다. 따라서 1956년 군산 장미동에서 시작된 호남제분 역사는 60년 만에 그 막을 내리게 된다.

덧붙임: 이용구 회장은 군산시 신흥동(구영1길)에 위치한 히로쓰가옥(등록문화재 183호) 건물주이기도 했다. 호남제분을 설립한 후 히로쓰가옥을 사들여 관사로 사용했던 것. 눈길을 끄는 대목은 그룹 경영권이 넘어가기 전 계열사 사옥들을 매각하면서도 히로쓰가옥을 처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은 이용구 회장 손녀(이나경)가 소유주인 것으로 전해진다.



박정희 대통령의 목포 유세를 알리는 1967년 5월 26일치 '경향신문' 1면

치아 마모는 느리지만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지난달에는 충치에 취약한 치아를 가지고 태어난 분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2-3배 칫솔질 더 열심히 하시고, 6개월마다 치과 정기검진을 받는 등 치아 관리를 아주 아주 열심히 하셔야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 그렇게 열심히 관리해도, 잘 해야 보통사람 발뒤꿈치를 쫓아가는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울한 말씀이지만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사실에 가까운 설명입니다.



“낙수가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지는 자리의 바위에는 오목한 홈이 파이게 되듯이 40년, 50년이 넘게 음식을 씹다 보면 어금니가 닳아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가 많이 닳다 보면 마모된 면이 시리기도 하고, 표면이 닳기도 하는 게 아니라 균열이 가기도 합니다. 균열이 심해지면 조금씩 이가 깨져나가게 되지요. 어금니에 일어나는 마모는 표면이 균일하게 닳지 않고 울퉁불퉁 불규칙하게 닳게 되어 충치가 생긴 것으로 착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흰머리가 줄어드는 경우는 없고 늘기만 하듯이, 어금니의 마모는 점점 더해가기만 합니다. 이가 닳는 걸 막을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럼 치아 마모에 대한 치료는 언제 해야 할까요? 정답은 마모로 인해 아프거나 하는 명백한 증상이 발생했을 때 치료하게 됩니다. 치료 방법은 이를 씌우는 것입니

다. 때우는 방법은 치아 표면에서 유지되지 못 하고 몇 달 이내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를 씌우기 위해서는 이를 씌울 수 있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 많은 양을 깎아내야만 합니다. 치아 하나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희생을 요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모로 인해 불편한 증상이 명백해져야 이를 깎아서 씌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에서 제일 왼쪽에 보이는 이는 오른쪽 아래 끝에 어금니로, 이가 닳다가 반으로 쪼개진 상황입니다. 그 옆에 이는 씹는 면이 많이 닳아 있고 뒤쪽 코너 부분이 조금 깨져 있습니다. 그 어금니의 앞에 앞에 것이 송곳니인데 이가 뽕족하지 않고 평평합니다. 뽕족했던 송곳니가 닳아서 평평해진 것입니다.



좋은사람 좋은치과 이형재 원장
군산시 수송동 852-2 청담빌딩 3F
(063)466-2875
bolteck2@hanmail.net

평생에 걸쳐 진행되는 치아마모는 막을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모가 진행되는 속도는 사람마다 편차가 매우 큼니다. 그래서 음식을 씹을 때 이유 없이 이가 시리거나, 자꾸만 이가 조금씩 깨져나가거나 한다면 가까운 단골 치과에 가셔서 원장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웃을 때마다 눈부신 치아 상상만해도!

너무 아름다운 미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항상 성심을 다해 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좋은사람 좋은치과가
되겠습니다.

Get a Smile.
겟 어 스마일 -
좋은사람 좋은치과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서비스.

좋은사람
좋은치과
Good People, Fine Dental

진료시간
● 평일 : 오전 9:20 - 오후 6:40
● 토요일 : 오전 9:20 - 오후 1:30
● 화요일 야간진료 : 오후 8:00 까지

add. 전북 군산시 수송동 852_2 청담빌딩 3F
tel. 063_466_2875 fax. 063_465_2922

의사, 얼마나 벌까?

얼마 전 2017년 대학입시가 정시 추가합격을 마지막으로 마감되었습니다.

몇 년째 계속되는 결과이지만 최상위권 수험생은 올해도 의, 치, 한의대에 몰렸고 의치대 합격선은 이미 서울대를 앞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보다 의대, 치대, 한의대를 선호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선 소위 SKY를 졸업한다 해도 취업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과 병의원이 다른 자영업자에 비하여 경기에 민감하지 않고 꾸준한 수입이 보장되는데 기인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의사들은 얼마나 벌고 있을까요?

지난해 종합병원이나 치과·한방병원을 제외한 의료업자의 경우 방사선과의 1사업장당 수입이 14억 51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정형외과(10억 5300만원), 안과(10억 4300만원) 순이었으며, 일반인의 예상과 달리 성형외과는 1억7700만원으로 1사업장당 수입금액이 가장 낮았습니다.

국세청이 밝힌 2016년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학원업 수입금액 현황에 따르면 방사선과는 전국 180개 의원이 2611억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해 1사업장당 평균 14억 51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의원 숫자 자체가 적어 평균 수입금액이 올라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정형외과는 4419개 의원이 4조 6552억원의 수입을 올려 1사업장당 평균 10억 5300만원의 수입을 기록했고, 안과는 1561개 의원이 1조 6278억원의 수입을 올려 평균 10억 4300만원의 수입을 신고했습니다.

반면 성형외과는 일반의 선입견과는 달리 1021명의 의원이 1803억원의 수입을 올려 1사업장당 평균 1억7700만원의 수

입을 신고했고, 한의원도 1만 4125명의 의원이 4조 3230억원의 수입을 벌어들여 1사업장당 3억 6백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이 개인의료원에 지출한 의료비가 가장 많은 곳은 치과로 전국의 1만 5895개 치과에 총 8조 5197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학원업 수입금액 현황

O 의료업		(단위: 명, 억 원)					
		2015년			2016년		
병과	신고연도	인원	수입금액	1사업장당 (백만원)	인원	수입금액	1사업장당 (백만원)
합계		72,558	425,744	587	69,343	452,941	653
종합병원		1,752	95,916	5,475	2,188	107,166	4,898
치과병원		1,720	11,578	673	1,511	12,868	852
한방병원		287	3,221	1,122	302	3,983	1,319
내과·소아과		11,073	60,133	543	10,845	61,875	571
일반정형외과		4,426	43,592	985	4,419	46,552	1,053
신경·정신과		1,273	9,144	718	1,304	9,075	696
피부비뇨기과		4,598	12,255	267	3,382	12,020	355
안과		1,542	15,926	1,033	1,561	16,278	1,043
이비인후과		2,355	11,615	493	2,372	11,944	504
산부인과		1,912	16,650	871	1,691	16,715	988
방사선과		181	2,439	1,348	180	2,611	1,451
성형외과		1,225	2,269	185	1,021	1,803	177
치과의원		16,993	78,560	462	15,895	85,197	536
한의원		14,150	42,253	299	14,125	43,230	306
기타*		9,071	20,193	223	8,547	21,624	253

* 기타: 마취과, 세균검사, 안마사, 접골사, 수의사 등 포함

의료업종의 평균소득율이 30~40% 선임을 감안하면 일반적으로 월 천만원이상의 소득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욱이 치과는 임플란트가 보험적용이 되고 있고, 한의원은 추나요법 등, 여러 한방치료가 보험적용될 예정이어서 가까운 수입금액 증가가 예상됩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꾸준히 보장되는 직업에 인재가 몰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수재들이 이공계를 기피하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의치한에만 몰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고민해봐야할 숙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일환세무사사무소
전북 군산시 월명동 19-12
(063)466-5566, 1766

세무상담 및 고문 | 가장 및 신고대리 | 법인 및 개인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신고 업무 | 조세 불복 청구대리 | 벤처기업 확인 업무

돈이란 버는 것 못지않게 관리가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세무사사무소**와 함께 하셔야만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무문제는
나일환세무사사무소가 책임지겠습니다.

나일환세무사사무소는 양질의 **세금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언제든지 **조세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일환세무사 역량
군산제일고 / 전북대 행정학과 / 군산대학교 회계학과
국세청 79급 공채(15년 근무) / 전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익산세무서 소득세과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군산세무서 재산세과(양도상속증여) / 공인중개사(14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군산지회 자문세무사 / 한국산업단지공단 군산지사 세무분야 전문가
군산세무서 공평과세 위원회 위원

나일환세무사사무소

군산시 동국사길 5 (월명동 19-12)
tel. (063)466-5566, 1766 fax. (063)466-5605

임대차 계약관련 상담 및 부동산시장 동향

금번호에서는 부동산 투자의 기본에 대한 부동산 전문가의 글을 인용한 글에 필자의 생각을 첨가하여 글을 써볼까 합니다.

지금 나라사정은 1)생활관련 물가상승, 2)주택대출 및 가계부채 증가, 3)청년 실업과 고용문제 4)정치부재(대통령의 탄핵)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누구나 삶의 궤도를 성실하게 지키려 애를 써 봐도 오늘 역시 어제보다 좋아지지 않고 있고 내일은 어떨까. 다음 달은 어떨까. 그저 속고 사는 게 세상살이 인듯 합니다. 민생은 어려워도 거들떠보는 사람은 없고, 온 종일 뉴스는 겹먹은 닭처럼 바짝 숨죽인 대통령과 뛰는 대선주자들 이야기뿐입니다. 대선주자들은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하는데 국민들은 왜 답답함을 토로할까요. 그래도 나는 말없이 열심히 살고 있다고? 그래, 열심히 살다보면 따스한 햇살이 골목길 담장 엉덩이를 들썩이게 하는 봄은 오겠지?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정후가 농후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투자방향을 잡아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먼저 수익성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좀더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토지도 좋아 보입니다.

또한 투자 연령대도 요즘은 50-60세대는 노후를 맞아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을 더 사 모으고 있고,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나 상가를 사고 있고 75세까지도 능력이 있으면 열성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노후세대들이 청년세대들보다 숫자가 많아져 형편이 어려워 가지못해 귀농이나 귀촌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극소수에 불과하고 이미 주택팔고 시골에 갔다가 정착에 실패하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을 수없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전원생활도 하루 이틀이고, 생전 살 것처럼 돈 많이 들여 전원주택 지어놓고, 써가격에도 안 팔려 애를 태우는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사정이 이렇진대, 고향이나 시골 부동산값이 오를 수 있겠습니까. 항시 가 봐도 땅은 평당 5만원, 집은 땅값만, 기타 건물은 공짜다 그런데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부동산이 10년 후에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부동산은 아무데나 사는 게 아닙니다. 곧 불길에 일어날 수 있는 곳, 일어나고 있는 곳이라야 이문을 남기게 됩니다. 항시 그대로 있거나 고개를 숙인 곳은 투자의 대상치가 아닙니다. 수도권 외곽은 물론, 지방이라도 꼭 개발가능성과 호재가 잠재해 있는 곳이라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50-60세대가 부동산 팔 것이라는 예측은 모두 틀렸습니다. 오히려 부동산을 쥐락펴락 할 사람들은 은퇴하신 젊은 오빠들입니다.

당신 예금통장에는 얼마의 돈이 들어 있습니까? 전 국민 중 30%는 한 푼도 없고, 30%는 기껏 해봐야 몇 십만 원이고, 20%는 1-2억이고, 10%는 5-6억이고, 또 5%는 10-20억이고, 나머지 5%는 20억 이상일 것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5%속에 들어가는 젊은 오빠가 될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땅도 땅 나름이니 땅 투자에 경험이 없으면 꼭 전문가의 조력을 받음이 좋습니다. 땅은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기도 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만 땅만한 투자 상품도 드물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부동산투자는 팔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눈에 콩깍지가 끼면 팔기 어려운 부동산을 살 수 있고 재개발 대상도 살 때는 금방 돈 벌 것 같지만, 한 번 사게 되면 쉬이 팔리지를 않아 속을 태우게

되고, 팔아봤자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래에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물려주면 금 수저, 주식 물려주면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아무래도 현금유통이 빠른 주식 이 좋다는 뜻이겠지만 국내 자산가들의 통계를 보면 상속과 증여로 부동산을 원하고 있습니다. 중국 춘추시대 손자병법에는 교토삼굴(狡兔三窟)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영리한 토끼는 굴을 3개 만든다는 뜻입니다. 삶에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세 가지로 준비하라는 가르침인듯 합니다. 여러분도 최소한 부동산 3개를 준비하시라 말합니다. 그렇다고 집만 3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입니다. 살 수 있는 집과 토지 그리고 수익성 부동산이 그것입니다. 요즘은 수명연장으로 60세 이상 연령대도 토지나 상가투자자가 부쩍 늘고 있음도 이유 있는 일입니다.

돈을 버는 데는 왕도가 없고 참으로 쉽지 아니한 일이라 통감하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쉽다면 밤낮으로 이리 고민하지 않았지요



석사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부동산자산관리사/
자산운용전문인력(부동산)
최인성 대표
군산시 조촌동896 (시청로10)
(063)452-0025 / 010-7758-4989



꽃샘바람

봄바람을 흔히 꽃샘바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이름입니다. 봄바람은 가지를 흔들며 뿌리를 깨우는 바람입니다. 긴 겨울잠으로부터 뿌리를 깨워서 물을 길어 올리게 하는 바람입니다. 무성한 잎새와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기 위한 바람입니다. 꽃을 시샘하는 것이 아니라 꽃을 세우기 위한 '꽃세움 바람' 입니다. -종략-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람속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눈감지 말고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깨워야 할 뿌리는 무엇인지, 우리가 선택하고 가꾸어야 할 우리의 얼굴은 과연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냉정하게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뼈아픈 회생을 치르지 않기 위하여, 가슴 아픈 불행을 답습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아름다운 얼굴을 위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사회를 위하여. -신영복 유고집 '아름다운 얼굴을 위하여' -

신영복 선생이 2000년 4월 총선을 바라보며 중앙일보에 쓰신 글 중 일부입니다. 어쩌면 봄을 맞는 마음과 새로운 인물을 맞이하자는 선거와 어울어져 있음을 관찰하신 지각이 아닌가 합니다.

올 새 봄 가장 커다란 관심은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아닌가 합니다. 탄핵 심판 [彈劾審判]은 헌법 재판소가 국민의 탄핵 소추에 따라 공무원의 탄핵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재판하는 일이고, 지난 12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로 대통령의 심판이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촛불문화제를 통해 전세계 유래없는 아름다운 정치집회를 만들어 냈고 행사에 참여한 연 인원만 해도 수백만에 이르는 전 세계 역사에 신기록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는 탄핵이 옳지 않다고 하며 맞불 집회를 개최하고 여야는 탄핵심판의 인용에 대비한 각 정당 대선후보 정하기에 발 빠른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찌되든 새 봄이든 겨울이든 결국 누구를 어떻게 선택 할 것인지는 국민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신영복 선생의 말처럼 정치인들의 얼굴은 우리가 선택한 우리의 얼굴이고 우리들의 자화상이라는 말에 깊이 공감하며, 잘못된 선택과 잘못 만들어진 철 가면 같은 얼굴에서 본래 순수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얼굴을 되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수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는지 되돌아 볼 때가 아닌가 합니다.

새 봄이 되면 저 마다 꽃이 피고, 그 꽃은 사람들의 눈에 띄게 아름다운 꽃으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소박한 꽃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세상의 어느 하나가 저 홀로 아름다움을 연출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 어울린 모습으로 공존할 때 그 아름다움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임을 안다면, 올 새 봄 꽃을 부르는 바람이야말로 뿌리를 흔들며 깨우고 가지를 흔들며 힘차게 물을 올리고 겨우네 쌓아두었던 생명의 힘을 마음껏 울려내어 꽃으로, 잎으로, 가지로 되살아나 여름 생명의 시간을 거쳐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는 가을 그리고 겨울이 되어 다시 몸을 추스르는 생명연속의 새 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 봄엔 '꽃샘바람'이 '꽃세움바람'이 되어, 되려 차잡지 않고 가슴뭉클한 바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글 | 이영진
younggeen2@naver.com

군산근대역사박물관

하반영 화백

‘삶을 담은 미술언어’ 작품전 개최

군산근대역사박물관(관장 문세환)에서는 박물관의 분관인 장미갤러리에서 ‘삶을 담은 미술언어’라는 주제로故하반영 화백의 추상화 작품전을 연다고 밝혔다.

7세 때 수묵화를 그리며 천부적인 재능을 인정받은 하반영 화백(1918~2015)은 가장 한국적이고 민족적인 작품으로 동서양의 융합을 시도했으며, 개인전 50회, 해외 초대전 10회, 국제전 150여 회를 치르며 ‘동양의 피카소’로 불렸다.

하반영 화백이 지난 2013년 군산시에 기증한 작품 100여점 중 일부가 전시되는 이번 작품전은 ‘삶을 담은 미술언어’로 기획되었다. 스타스키 꽃이 있는 정물, 봄, 밝아온다, 생명의 샘, 힘, 마하, 어머니의 장생, 복숭아 등 하반영 화백의 대표작 30여점이 선보이는 자리로 마련하였으며, 구상, 비구상(반구상), 추상 등 장르의 스펙트럼을 넓게 구성하였다. 하반영 화백의 과감한 장르 탈피와 장르해체를 보여주는 정물화, 풍경화, 추상화들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그의 뛰어난 예술성을 보여주는 사실주의 화풍과 장르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감상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하반영 화백의 다양한 작품을

통해 관람객은 물론 군산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로 기획되었다”며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작가, 하반영 화백의 예술 세계와 혼, 그리고 삶의 자취를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시가 열리는 장미갤러리는 복원된 근대건축물로 지난 2013년 6월부터 1층은 하 화백의 자료실로 화구 전시와 관련 영상을 상영하고 있으며, 2층은 하 화백의 상설전시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작년 한 해 동안 100만명의 방문객이 방문하였고 30여회의 다양한 전시 및 공연을 통하여 살아있는 박물관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매월 평균 6만여명이 방문, 군산 원도심 활성화와 근대 문화사업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전국 5대박물관으로 선정되고, 박물관 인근의 7개 건물이 테마단지화 되면서 전국적인 가족단위 체험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주말에는 입장권을 구입하기 위해 길게 늘어선 관람객의 모습이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 되고 있다.



‘어쩌다, 예술’

2017년 봄, 군산시민예술촌이 분주하다.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하는 시민예술촌은 그동안 시민들과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관계맺음으로 시민예술촌의 역할을 찾아갔다면 올해는 그간의 사업들을 총망라하고 재정비하며 체계화시키고 가장 군산다움을 찾아가는 매개공간의 역할로서 자리매김함에 집중하고자 분주하게 봄을 맞이하고 있다.

일상 속 문화예술 가치발견과 시민에 의한 문화도시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문화예술거리사업, 공간, 교육, 고리사업등 4가지 사업에 중점을 두고 시작한 사업 중 첫 문을 교육사업으로 열었다.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학습과 창작 공간으로서 군산의 역사를 바탕으로 원도심권 문화예술 활성화에 매개체 역할을 하며 무엇보다도 창작과 네트워크를 통한 시민문화 예술활동 등에 중점을 두고 시작한 교육사업은 교육강좌명도 유쾌하다.

‘어쩌다, 예술’

어쩌다... 어른이 된 사람들의 못다 이룬 꿈들의 이야기를 청개구리의 긴 겨울잠을 깨우듯 일깨워주며 함께 공유하고 문화예술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문화적 소양을 갖추고자 한다.

전통, 공예, 미술, 음악, 문학, 기획 분야로 나누어 탈춤교실, 풍물, 민요·판소리, 생활공예, 도자기 공예, 색연필일러스트, 서예, 청춘동요, 하모니카, 색소폰, 시·수필창작반, 시낭송등과 청년들에게 ‘창작무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준비한 ‘재치 있는 MC’가 신규프로그램으로 개설되었으며 군산시민예술촌 인근(개복동)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힐링요가 교실이 진행될 예정이다.

군산시민예술촌이 가고자 하는 방향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중심에 있다. 사람의 삶의 향기가 있고 더욱더 살맛 나는 세상이 됨을 느끼며 삶의 질을 향상시킴에 군산시민예술촌이 함께 하고자 한다.

2017. 군산시민예술촌의 봄이 향기롭다.



군산시민예술촌

군산시 중정길 17 (구 우일극장)
063-443-7725 / www.gsartzone.kr

청소년 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참여자를 모십니다.

청소년 경제활동 자치기구

경영학과, 경제학과, 마케팅학과 등을 가고 싶다고
요?! 경제활동은 해보고서 결정하신 건가요??
기획, 시장조사, 멘토와의 만남 등을 통해 지역에서
프리마켓 운영 및 마케팅 활동을 하며 청소년들의
경제활동과 지역 기여 활동을 이끌어 갑니다.

인문학 자치기구, 꿈찍이는 수다방

진로의 핵심은 나도 모르는 나를 알아가는 것이다!
청소년과 성인이 함께 인문학 서적을 읽고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삶과 죽음, 사랑, 고
뇌 등 인생의 전반에 대해 주제별 책을 읽고 소통하
며 글을 씁니다.

청소년 자원봉사단, "달봉"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교육에 참여하고 회의를 통해
자원봉사를 기획, 진행합니다.

청소년 기자단, "ASPECT"

기자교육을 통해 정기적인 기사기고를 하며 지역에
필요한 기자가 됩니다. 지역의 정치, 사회, 교육, 문
화, 경제 등에 대해 인터뷰 거리를 찾고, 직접 인터뷰,
취재, 글작성, 편집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 진로 자치기구, "BODA"

청소년들이 지역 성인들과 만나 청소년들을 위한 진
로토크콘서트를 기획, 준비하여 진로고민과 삶의 이
야기를 알립니다.

청소년 작가단, "눈맞춤"

군산 청소년들의 삶을 멋지게 알려라!
청소년의 꿈, 완전 멋진 모습, 깊은 고민 등을 인터
뷰하여 글로 소통합니다. 청소년들의 진짜 삶을 알
려 편견을 깎습니다.



청소년 인권 캠페인단

전라북도 청소년을 포함한 실제 지역 시민들이 생각
하는 청소년인권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알립니다.
주요 지역 인권 문제 하나를 선정하여 이를 해결하
기 위한 지역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합니다.

달그락 청소년 방송국

지역에서 필요한 다양한 뉴스거리를 기획, 제작 보
도합니다.

* 청소년자치연구소&달그락달그락 활동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청소년자치연구소 및 달그락달그락
다음카페 : cafe.daum.net/ymcaleader
홈페이지 : <http://www.youthauto.net/>
페이스북 : www.facebook.com/youthautonomy/
문의 : 063-465-8871, jbyar@daum.net

달그락 달그락

“작고 단단한 물건이 부딪히는 소리”

앞의 달그락은 청소년들이 움직여서 내는 소리입니다.

뒤에 달그락은 청소년들의 움직임과 목소리로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소리입니다.



Youth Movement



저희 연구소와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후원계좌_ **국민은행 247901-04-096683**
예금주_ (사) 들꽃청소년세상

생명 **들꽃청소년세상**
청소년자치연구소

add. 54023 전북 군산시 월명로 475-1(월명동)
tel. 063) 465-8871 fax. 063) 466-8871
e-mail. jbyar@hanmail.net web. [youthauto.net](http://www.youthauto.net)
cafe. <http://cafe.daum.net/ymcaleader>

군산에서 펼쳐지는 축제 및 행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캘린더입니다.
매일 새로운 행사를 찾아다니며 군산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행사 및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람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맥군(매거진군산)에서는 행사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사를 맥군 행사 안내란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감은 매월23일까지 입니다. jay0810@hanmail.net

가족 친구 연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행사와 공연 스포츠 경기를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GUNSAN CALENDA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전시 | 군산예술의전당

문을 넘다
2017-03-08 ~ 2017-03-12

난 전시회
2017-03-10 ~ 2017-03-13

도자조형전
2017-03-14 ~ 2017-03-20

꿈으로 부터 세계로
2017-03-25 ~ 2017-0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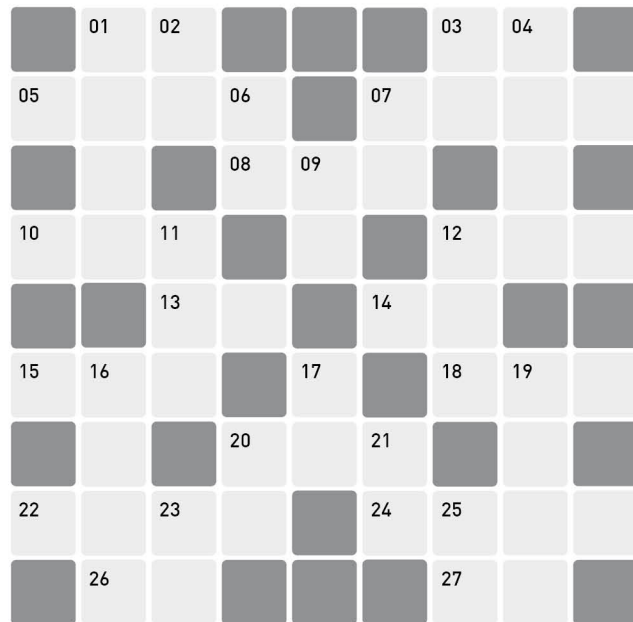


우리들의 작은 관심으로
희망과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스영아원 군산시 개정동 413 (063) 452-4075	구세군군산후생관 군산시 신흥동 58-10 (063) 445-9331	삼성애육원 군산시 신창동 7 (063) 445-5947
일맥원 군산시 문화동 824-7 (063) 462-2385	신광모자원 군산시 나운동 1242-9 (063) 462-7749	신광모자자립원 군산시 나운동 845-9 (063) 461-8572
구세군군산목양원 군산시 회원면 증석리 58-8 (063) 466-6088	나눔의집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88-1 (063) 464-9944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군산시 칠성안 3길 37번지 (063) 466-7981

날말 실력도 높고, 상품도 받고

즐거워 크로스워드 퍼즐 68



<제67호 퍼즐 정답>

박	영	수			이	판	사	판
식		첩	경		탈	수		돈
			무	거	리			
정		가	관		아	제		고
유	류	분				분	탕	질
년		수	일		입	소		병
			도	승	지			
못		귀	양		전	입		제
국	정	농	단			춘	궁	기

정답 (이름, 연락처, 주소)을 매거진군산에 보내주세요.
당첨된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Fax. (063)911-1856 **E-mail.** jay0810@hanmail.net

정답이었으나 연락처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선물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답과 연락처, 주소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열쇠

- 01 사람이나 집단, 조직, 사물 등을 자기 뜻대로 복종하게 하여 다스림.
- 03 고대에 만들어진 무덤.
- 05 실제 상황이나 자연 현상 등을 사실 그대로 찍은 영화.
- 07 기생이나 몸 파는 여자들이 빌붙어 놓고먹는 사내.
- 08 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
- 10 서커스단.
- 12 젓을 떼는 시기에 아기에게 먹이는 음식.
- 13 두두룩한 두 땅의 사이에 길고 좁게 들어간 곳.
- 14 보통과 매우 다름. ○○스런 옷차림. 달이 ○○히 밝다.
- 15 물을 조금도 타지 아니한 술.
- 18 영공을 지배하는 국가의 배타적인 주권.
- 20 어머니의 율게는 손수로 나에게 ○○○가 된다.
- 22 현재 사회를 이끌어 가는 나이가 든 세대.
- 24 오랑캐로 오랑캐를 무찌른다는 뜻으로, 한 세력을 이용하여 다른 세력을 제압함을 이르는 말.
- 26 정실이 낳은 아들. ⇄서자.
- 27 침략이나 공격을 막아서 지킴.

세로 열쇠

- 01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으로, 거짓을 끝가지 우겨서 남을 속이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02 위를 향하고 번듯이 누워 치는 해엄.
- 03 소라, 우렁이 등 복족류(腹足類)에 속하는 연체동물.
- 04 진시황이 학자들의 정치적 비판을 막기 위하여 서적을 불사르고 유생들을 구덩이에 묻어 죽인 일.
- 06 외국에 사는 중국사람.
- 07 바둑을 둘 수 있도록 시설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곳.
- 09 설명이나 증명 없이 진상을 곧바로 느껴 앓. 또는 그런 감각.
- 11 개고기의 북한 용어.
- 12 1935년 '목포의 눈물'로 큰 인기를 얻은 여가수. 목포 유달산에 노래비가 세워져 있다.
- 16 상급 학교가 입학생 선발을 위하여 하급 학교로부터 받는 학생의 성적, 건강, 태도, 출결 등에 관한 기록.
- 17 양심을 품고 서로 미워하는 사이.
- 19 두 손을 땅에 짚고 두 다리를 공중으로 쳐들어서 반대 방향으로 넘는 재주.
- 20 외국어대학교의 준말.
- 21 닭이나 날짐승의 먹이.
- 23 임금의 아들.
- 25 해당 학과를 순서대로 공부하여 마침.

출제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근대군산 1930 시간여행

Modern History
Time Travel
to Gunsan



군산이 당신의 기억을 힐링해 줄거야

이번에 군산에 가면
빵도 먹고,
점빵도 먹고,
간장게장도 먹고,
콩나물국밥도 먹고,
호원사진관하고 은파호수공원하고
철길마을에 가서 사진도 찍고,
새만금을 미친듯이 달려보고,
일본식가옥에서 조상의 아픔도 느끼고,
근대역사박물관도 구경할거야.
그리고,
잠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잘거야.

즐거워 여행의 시작은
좋은 숙박에서 시작됩니다.
군산에 오시면
편필리지로 연락 주세요.
당신이 원하시는 게스트하우스를
소개해드릴게요.

나비잠 게스트하우스
010-8436-8810
군산시 구영3길 34-2



햇살이 가득한 집
010-6678-6759
군산시 거석길 39



풀잡 게스트하우스
010-4489-2663
군산시 구영3길 67



레마 게스트하우스
010-4463-1563
군산시 중앙로 205



사이사이 게스트하우스
010-5401-1959
군산시 구영6길 64



게스트하우스 이웃
010-4048-8811
군산시 구영1길 11-2



전국 최초 게스트하우스 마을기업
군산편필리지협동조합
www.funvillage.kr 063-446-8830



작 사 가 윤 종 신
콘 서 트
Part . 2 특 강

2017.03.25 (Sat) 7pm

군 산 예 술 의 전 당

주최 : 전주 **MBC** / 주관 : (유)예향미디어

기획 / 제작 (주)타입커뮤니케이션, 미스틱엔터테인먼트 예매 :  인터파크 문의 : 063.220.8282